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성폭력 범죄 중 공연음란
(노출행위)죄에 대한 재범원인
및 병리적 영향 분석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상담심리치료학전공

최 용 준

2019학년도

성폭력 범죄 중 공연음란
(노출행위)죄에 대한 재범원인
및 병리적 영향 분석

지도교수 김 대 중

이 논문을 상담심리치료학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6월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상담심리치료학전공

최 용 준

최용준의 상담심리치료학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인준함

2020년 6월

위원장 김 대 경 (인)

위원 권 영 성 (인)

위원 김 대 중 (인)

국문초록

성폭력 범죄 중 공연음란
(노출행위)죄에 대한 재범원인
및 병리적 영향 분석

Analysis of the causes and pathological effects of
recidivism on Obscene performance (Exposure
behavior) crimes during sexual violence crimes

상담심리치료학전공 최 용 준
지도교수 김 대 중

강력범죄 중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수용자의 재범원인과 병리적 영향을 분석하여 사회에서 간과되고 있는 다수의 피해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회복적 정의 구현을 위한 공동사회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교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가해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본 연구자가 운영한 결과와 법무부 성폭력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결과를 종합 분석하였다. 또한 이수명령집행과 심리치료자료 연구로 접근 가능한 수용자 32명의 인구사회학적 분석과 치료 약물복용 여부, 성폭력범죄자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구속 사유를 분석하였다.

통계 자료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출소 시 성폭력죄명으로 다시 입소한 재복역률 37.7%로 강력범죄자의 평균 재복역률보다 12.3% 높다. 성폭력범행이 확장되고 되풀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에서 공연음란죄 범죄자 32명은 일용직 근로자로 우울증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성(性)적인 욕구 조절이 어렵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원인이 정신의학적이고 심리적인 것에 함의를 둘 수 있다. 이는 형사적 처벌만으로는 재범 방지효과가 낮다는 것과 심리치료와 의학적 치료의 지속적 병행이 재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를 통해서 형사 사법적으로 낮은 형사적 처벌로 인해, 표면화되지 않는 소수의 범죄 집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동사회 실현에 중요하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주요어: 공연음란, 재범원인, 심리치료, 병리적 영향, 회복적 정의, 공동사회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II. 이론적 배경	4
1. 공연음란죄의 개념	4
2. 선행연구 분석	5
1) 공연음란죄 피해자 연구	5
2) 노출증 관련 연구	6
3) 성범죄관련 연구	10
3. 정신분석학적 접근	12
4. 인지행동치료(CBT)적 접근	14
5. 해결중심치료 접근	16
6. 최근 적응 모델 및 이론	17
1) 좋은 삶 모델(GLM)	17
2) 동기강화 면담(MI)	18
3) 긍정심리학적 접근	19
7. 통계 자료를 통한 성범죄관련 현황	20
III. 연구문제	22

IV. 방법론	25
1.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25
2. 성폭력 가해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분석	25
3. 심리검사 분석(기본과정 7개 척도)	28
V. 연구결과	33
1. 연구문제 1	33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	33
2) 연구대상자의 병리적 특성 분석	35
2. 연구문제 2	38
1) 연구대상자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38
2)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선 방향	40
3. 연구문제 3	41
1) 연구대상자의 구속 사유 분석	41
2)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시스템	44
VI. 논의 및 결론	45
참고문헌	50
부록	57
Abstract	66

표 목 차

<표Ⅱ-1> 노출증의 진단기준	7
<표Ⅱ-2> 노출장애의 진단기준	7
<표Ⅱ-3> 노출증의 유형	9
<표Ⅲ-1> 성폭력 가해자 심리치료 과정	23
<표Ⅲ-2> 성폭력 가해자 심리치료 운영	23
<표Ⅳ-1> 심리치료 프로그램 기본과정 주요내용	26
<표Ⅳ-2> 심리치료 프로그램 유지과정 주요내용	27
<표Ⅴ-1> 인구사회학적 빈도 분석(성별, 연령, 결혼 여부)	33
<표Ⅴ-2> 인구사회학적 빈도 분석(직업)	34
<표Ⅴ-3> 인구사회학적 빈도 분석(학력)	35
<표Ⅴ-4> 약물 복용 여부 빈도 분석	35
<표Ⅴ-5> 복용 약물 빈도 분석 1	36
<표Ⅴ-6> 복용 약물 빈도 분석 2	37
<표Ⅴ-7> 프로그램 대응표본 통계량 분석	39
<표Ⅴ-8> 구속 사유 빈도 분석	42

I. 서 론

1. 연구 배경

2014년 8월 다수의 언론에서는 지방 검사장의 음란한 행위를 집중 보도한다. 범죄행위를 엄단하는 공무원이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그 범죄는 공연음란죄였으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이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관심은 멀어졌다(연합뉴스, 2014.11.25.). 그 후에도 유사한 사건의 증가와 함께 피해자도 증가하고 있었다(법무부, 2020성범죄 백서). 그 당시 법무부 교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가해자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의문은 계속 이어졌다.

이 연구는 교정기관에서 28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범죄자의 재범에 대한 안타까움과 특히, 성범죄자 중에서도 공연음란죄 가해자가 빈번하게 교정기관에 다시 수용되는 것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1877년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 Charles Lasègue에 의해 처음으로 ‘노출증’이라는 증상이 언급되었다(이동귀, 2016). 그러나 143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노출증 발현에 대한 뚜렷한 해결 방안보다는 피해 사례를 통한 자극적인 자료만 미디어에 나타나고 있다. 성범죄는 성(性)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이다(윤덕경, 2012).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언어·심리적인 폭력이며, 이런 행위가 지속되면서 살인이나 강도 등의 강력범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공연음란죄에 대한 재범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경찰청 범죄백서에서는 공연음란죄 발생 건수가 2013년 1,471건에서 2017년 2,989건으로 5년 만에 1,519건으로 103%의 증가세를 보인다. 2018년 공분을 산 어느 여대 ‘알몸남 사건’은 신체노출에 그치지 않고, 그 노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까지 했다. 이는 사이버 성폭력인 것이다(이경희, 2005). 이렇게 범행 수법이 더 대담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으로서는 적발 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조선일보 2018.10.17.).

Claude Janin은 죄책감을 중심으로 수치심을 바라보는 정신분석학적 접근

이 폭압적인 초자아의 아버지에 대한 이데올로기 비판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면, 현대 자본주의의 전 지구적 소비경제가 야기한 향락적 개인주의로부터 수치심에 대한 현대의 긴급한 윤리학적 차원의 요청이 안팎에서 제기되는 시대적 상황이라고 지적한다(정락길, 2016). 심각한 스트레스와 억압된 현실에서 나타나는 반윤리적 행위의 분출이 노출로 나타난다. 인간본성의 성적(性的) 기호 또는 호기심의 발현은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을 통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통계자료에서 공연음란죄 피해자의 64%는 10~20대의 젊은 여성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법무부, 2018). 또한 사회적으로는 공연음란행위를 가벼운 범죄로 생각하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받는 정신적 충격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으로 존재하고 있다.

공연음란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법으로 규정한 처벌도 약해 재발 빈도가 높다. 형법 제245조에서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법률용어사전). 신체적, 물리적 성범죄 피해자들과 달리 공연음란 피해자들은 신체적 폭력 등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해바라기 센터(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지원 기구) 연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서 2018년도 공연음란죄 발생건수는 2,625건이었으며 검거율은 77.2%로 다른 범죄에 비해 낮다. 또한 구속 기소되는 인원은 41명으로 1.6%에 그치고 있다.

공연음란죄 피해자에 대한 선행연구는 있으나 가해자 분석 등에 관한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공연음란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자는 증가하고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공연음란죄 수용자의 재범원인과 병리적 영향을 분석하여 다수의 피해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동사회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출된 결과는 성폭력 범죄자 중 공연음란죄명의 가해자 심리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 범죄자 중 공연음란죄 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춰 강력 범죄로 변형되는 계기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가 존재하면서도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공연음란죄 가해자 개선으로 중대한 범죄 발생을 차단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 중 공연음란죄 범죄자의 심리적 측면에서 공연음란(노출행위)의 증상적인 특징 분석과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증상 및 병리적 특징을 살펴본다.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 세부적인 범죄 유형별 특성에 맞는 심리치료프로그램 적용과 의료적 처우가 병행되었을 때 효과성이 증대한다는 것을 탐구하고 이를 입증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공연음란죄의 개념

공연음란죄의 정의는 법률적 정의와 의학적 정의가 있다. 법률적 의미에서 공연음란죄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 245조)” 로, 공연음란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법률용어사전). 법률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특정 대상에게 성기를 노출시킨다든지, 어린이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는 등의 행동은 건전한 성도덕을 해칠 뿐더러 공공의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필요로 할 때 법 적용이 된다(김윤식, 2011).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 라 함은 일반인(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례에서처럼 성적인 행위나 의도가 아니더라도 공연음란죄가 성립된다. 공연음란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법으로 규정한 처벌도 약해 재발 빈도가 높다(범죄백서, 2019).

공연음란에 대한 의학적 정의는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진단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 DSM-5) 기준의 성도착 장애 종류에서 노출증(exhibition)이 해당된다(차훈진, 2014). 예기치 않은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에서 강한 성적 흥분이나 욕구, 행위, 공상들이 반복되며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이다(김윤식, 2012).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성기를 외부로 노출시키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학교나 놀이터에서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것, 공공장소에서 분노 표출로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 알코올(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

사람이 지나갈 때 일부러 차량 안에서 바지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것 등이 있다(김윤식, 2012).

반면, 공연음란의 표출행위인 노출 또는 반나체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다른 관점에서 해석되고 있다. 예를 들면, 몽골의 판매자 협회 여성들의 ‘반나체 시위’ (뉴스웨이브, 2018.1.29.), 인도 여배우의 ‘반나체 미투 운동’ (중앙일보, 2018.4.9.) 등은 성(性)적 평등과 원초적 본능에 대한 재해석이다.

2. 선행연구 분석

1) 공연음란죄 피해자 연구

2014년 여름, 우리 사회는 한 고위공무원의 공연음란행위에 대한 언론보도에 집중하고 있었다(이데일리 등 언론매체, 2014). 이 사건은 공연음란죄에 대한 법률적 연구와 공연음란 피해자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증폭제가 되었다.

공연음란죄에 대한 연구는 가해자를 찾거나 만나기 어렵다는 것에서 비롯되어 피해자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시작된 계기가 되었다. 또한 피해자들의 범죄 신고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에서 가해자 연구를 위한 피해자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자기보고식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작성하도록 하여 당시 피해 경험, 피해 상황의 특성, 범죄자의 범행 수법 등을 분석하여 공연음란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범죄 예방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대학생과 일반인을 상대로 공연음란 피해를 입은 여성 216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였다(김윤식, 2012).

선행연구 결과에서 정신적 상처가 매우 컸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공연음란 행위는 신체적인 접촉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체로 행위 후에는 범행 현장을 바로 이탈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장소가 대부분 공공의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각적인 신고를 통한 현행범이 아니라면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피해자들의 설문에 의하면 계절로는 6월에서 8월 사이의 여름철이며 시간대는 12시에서 16시 사이인 오후시간에 학교근처

또는 놀이터에 있거나 노상에서 혼자 걷고 있는 11세에서 20세 사이인 10대 여성이 피해자의 다수를 차지하였다. 피해자 신고율은 5.6%로 나타났다(김윤식, 2012).

공연음란 행위자는 어린 여성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혼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더 큰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타인의 의도적인 성적 신체 노출을 목격한 것에 대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의 결과는 정신적으로 피해가 컸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Riordan은 공연음란 범죄 피해자들은 공포를 느끼는 등 상당수가 강렬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여 정신적 충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에 비해 공연음란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정신적 상처와 수치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윤식, 2012). 피해자들 대부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과 공연음란죄 가해자들의 행위 차단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연음란죄 피해자 연구에서 나타난 가해자 특징을 연구대상자 분석을 통해 확인할 것이며, 정신관련 증상과 치료적 처우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노출증 관련 연구

“우리나라 최고의 사정기관인 검찰 고위직공무원. 누구보다 준법정신은 남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 사람이 왜 그런 노출행위를 했을까?” 라는 의문은 일반적인 생각일 것이다. 지난 2014년 여름밤에 발생한 사건의 충격은 오랜 시간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들의 뇌리에 지속적으로 남았을 것이다. 당사자가 밝힌 심경을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당사자는 언론을 통해 정신과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을 공표하면서 범죄이기 전에 치료적 대상이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었다. 명예와 신뢰를 무너지게 한 노출장애 문제는 스스로의 의지로 해결이 불가능해 보인다. 형사적 처벌과는 별도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표 II-1>의 노출증의 진단기준에서 노출증(exhibitionism)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성기를 제3자에게 드러내 보임으로써 성적인 만족감을 얻는다. 보

통 제3자는 타인 성기를 보길 원하지 않는 낯선 사람이다(차훈진, 2014).

<표 II-1> 노출증의 진단기준

진단기준	302.4(F65.2)
A. 적어도 6개월 이상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상상, 충동, 행동을 통해서 반복적이고 강렬한 성적 흥분을 느낀다.	
A. Over a period of at least 6 months. recurrent and intense sexual arousal form the exposure of one's genitals to an unsuspecting person, as manifested by fantasies, urges, or behaviors.	

자료: DSM-5,(2013), APA.

2013년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이하 APA)가 발행하는 정신장애에 관한 분류체계인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5, 이하 DSM-5)’ 에 의하면 노출장애를 성도착 장애 8개 하위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윤정숙,2014). <표 II-2> 노출장애의 진단기준에서 보통 18세 이전에 발생되고 그 후에도 시작될 수는 있다. 유병율은 남성의 2~4%로 추정되고 있다. 보통 40세 이후에는 상태가 완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권석만, 2013).

<표 II-2> 노출장애의 진단기준

진단기준	302.4(F65.2)
A. 적어도 6개월 이상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상상, 충동, 행동을 통해서 반복적이고 강렬한 성적 흥분을 느낀다.	
B. 그는 이러한 노출행위들을 통해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성적 흥분을 느꼈거나, 성적 충동이나 상상이 직업적·사회적으로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고통이나 중요한 결함을 초래한다.	
A. Over a period of at least 6 months. recurrent and intense sexual arousal form the exposure of one's genitals to an unsuspecting person, as manifested by fantasies, urges, or behaviors.	
B. The individual has acted on these sexual urges with a nonconsenting person, or the sexual urges or fantasies cause clinically significant distress or impairment in social, occupational, or other important areas of functioning.	

자료: DSM-5,(2013), APA.

스웨덴에서 실시한 연구결과에서 일생 동안 남성들 4.1%, 여성들 2.1%가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 보이는 행동에서 성 충동을 느낀다고

한다(Langstrom & Seto, 2006). 노출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적 흥분을 얻기 위해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것을 선호하거나 혹은 필요로 하며, 이것은 자위행위와 동반될 수 있다(박원명, 2014). 노출장애(exhibitionistic disorder)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 보이는 행동을 일으키는 성적 충동이 존재해야 하고,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사회적, 직업적 영역이나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심각한 고통(distress)을 받거나 결함(impairment)을 나타내야 한다(차훈진, 2014). 노출장애 환자들은 보통 노출행동을 여러 사람들이 왕래하는 공공장소에서 일으키는데, 이런 특성으로 인해 범죄자로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노출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런 행동은 체포의 위험성을 더욱 증가시킨다(차훈진, 2014). 이런 형사사법적 위험성은 오히려 그들의 성적 흥분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 그로인해 노출장애 환자들은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저지르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Murphy & Page, 2008).

DSM-5에서 성도착 장애(paraphillic disorders)란 성행위의 상대방이나 성행위 방식에서 비정상성을 나타내는 장애로서 변태성욕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성도착 장애의 진단 기준은 부적절한 대상이나 목표에 강렬한 성적 욕망을 느끼고 그 성적 상상이나 행위를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상상이나 행위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스스로에게 심각한 고통을 받는다거나 현저한 사회적·직업적 부적응을 나타낼 때 성도착 장애로 진단된다(차훈진, 2014). 성도착 장애는 다양한 하위 유형이 있다. 유형 8가지는, 관음장애, 노출장애, 접촉마찰장애, 성적 피학장애, 성적 가학 장애, 아동성애장애, 성애물장애 그리고 의상전환장애가 있다(권석만, 2013).

성도착 장애 환자는 성적 흥분을 얻기 위해 규범에서 벗어난 성적 환상이나 욕구 그리고 행동을 강박적으로 반복한다. 그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그의 일상엔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 예를 들어 단순히 기회적인 범죄이거나 물질의 사용으로 인해 유발된 탈억제나 지적발달장애 혹은 정신분열증의 결과에 의한 판단력 저하 등으로 설명 할 수 없어야 한다(박원명 등, 2014). 성도착증의 발현 초기에는 자극을 추구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고, 노출증이나 관음증 등으로

욕구를 표출하기 시작한다. 그 후 자극추구는 강하게 된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동적 측면이 강화된다. <표 II -3>에서 노출증의 유형을 살펴본다.

〈표 II -3〉 노출증의 유형

구분		내용
전통적 노출증	유형1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이완된 상태의 성기를 내보이는 유형
	유형2	발기된 성기를 내보이거나 발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수음을 하는 유형
살리로마니아 (Saliromania)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드러내고 오르가슴에 이를 때까지 자위행위를 하다가 살아 있는 피해자 혹은 여성을 표상하는 무생물을 향해 사정을 하는 유형
사진노출증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갖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행위
배설물 노출증		절도범이 침입한 곳에 배변을 하고 나오는 경우로서 자기 창자 속의 내용물을 일종의 가학적 선물처럼 드러내는 유형
언어적 노출증		전화를 걸어 누군지 모르는 무방비 상태의 여성에게 파괴적이고 음란한 언행을 하는 유형
기타 결합형 노출증		물품음란증이나 가학적 성 환상 등과 같은 여타의 정신병리학적 형태와 결합된 유형

자료 : Brett Kahr · 이세진 역(2003).

그 행위의 형태는 적극적으로 타인 신체에 자신의 몸을 부적절하게 접촉시키기도 하고, 가학적인 성적인 행동을 지속하게 될 수도 있다. 문제는 그런 행동 이후의 상황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들이 사실상 공동사회에서 용납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동을 지속하게 된다. 성도착증의 발현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신경계적인 문제이다. 우리의 뇌에서 전두엽은 충동 억제를 담당한다. 유전적이거나,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발병하게 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성장기 환경에 의한 원인이다. 성장하면서 성에 대한 인식을 학습하게 된다. 특히 성장기에 성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형성된 경우에는,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성장기

교육과 양육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노출장애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형법」상의 공연음란죄,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및 「치료감호법」상의 치료감호 대상으로 형사처벌과 치료적 처우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신관우, 2012). 그러나 처벌에 있어서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노출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의 중요성은 낮지 않지만, 치료적 처우와 관련된 기준 마련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노출행위의 원인분석에서 심리적 치료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치료적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성범죄관련 연구

1990년대 이후 성폭력 범죄는 형사정책에 있어 변화의 중심이 되었다. 범정 형량을 상향 조정하며 자유형 선고 비율을 높이고 가석방 축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은 증가하고 전체적 범죄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8). 이에 새로운 형사정책이 시도되었으며 범죄자에 대한 감시체계와 사후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전자발찌제도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200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착용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그 외에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를 비롯하여, 정보공개 제도와 취업제한 등 통제수단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일반인 428명과 성범죄자 491명의 집단 간 차이를 측정된 자료에서 특히, 노출증, 관음증, 복장도착증에서 성범죄자 집단이 더욱 두드러졌다(윤정숙 등, 2015). 성범죄 발생 관련해서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정보 분석을 통해서 성인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피해자의 의복이나 음주와 같이 피해 유발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조직성이나 계획성 면에서 접근하기가 쉽고 제압하기 쉬운 시간이나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노상과 같이 공공장소인 다수의 잠재적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는 지점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윤정숙 등, 2015).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가고 통제를 더욱 확대하는 이유는

성폭력 범죄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형벌이 필요하다. 고전학파에 따르면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형벌은 범죄에 상응해야 하는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은 범죄자의 행위로 인해 사회에 야기된 해악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민수홍 등, 2017). 처벌은 범죄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며, 입법자들은 불법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범죄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박순진, 2019). 처벌이 지나치게 미약하면 범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쇄하지 못하므로 범죄를 억제할 수 없고, 처벌이 너무 심하면 가혹한 처벌로 이어질 우려와 더불어 범죄 현장에서 범죄자의 과잉 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범죄를 억제할 수 없다(박순진, 2019). 고전학파에 따르면 자의적이고 불명확한 법체계와 지나친 처벌은 합리적 판단의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보았다(민수홍 등, 2017).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범행 당시의 상황적 요인에 크게 의존한다. 살인을 비롯한 폭력성 범죄를 보면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명확한 범행의 동기를 가지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며 범죄 발생은 상황적 요인에 크게 의존한다(박순진, 2017). 성폭력 범죄자는 의식적이기 보다는 무의식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강성인 형사사법 정책으로 이어질 때, 범죄자를 포용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배제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려는 의도적인 분위기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정책이 의도하는 방향과는 다른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강성정책 실행에도 불구하고 범죄 발생과 재범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일반 국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증가할 것이다. 범죄자의 범죄행위에 분노하고 그로인해 더 강력한 형사적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처벌위주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형기를 끝마친 범죄자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재사회화는 무척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은 다시 재범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없다면 범죄자가 그 지역 사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런 분명한 사실에 부합하는 형사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지

금과 같이 범죄자에 대한 배제와 증오가 일상화된다면 일단 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죄의 대가를 치른 이후에도 다시 재범으로 내몰리지 않을 수 없다(박순진, 2019).

성범죄 유발요인 중 많은 요인들이 일반인과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성욕을 강박적으로 배출하려는 성적강박이나 성도착증적 습벽, 표출적인 공격 행동, 충동성, 성적인 가학증, 아동에 대한 성적인 흥분이나 아동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과 같이 성적 공격성의 외현화된 행동이나 일탈적 성적인기호 등은 성범죄자가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윤정숙, 2015). 이와 같은 결과에서, 성범죄의 성적인 공격 행위는 성욕이나 분노의 감정 등인 욕구나 감정적 측면에서의 과잉이라기보다는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조절 능력의 상실’이나 오히려 정상적 범위에서 벗어난 불법적 혹은 비규준적 영역의 성에 대한 욕구나 행위의 추구와 더욱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윤정숙, 2016). 이를 통해서 자원들의 다양성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모든 자원들을 획일적 방식의 투입보다는 범죄 행위자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범죄환경의 심층적 진단을 통해서 보다 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 그리고 보다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고위험 지역에 자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해야 할 것이다. 성범죄자의 내재 특성과 외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발생에 관한 원인과 발생하는 환경을 예측하고, 장기적으로는 성폭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사회적 안전도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외연을 확대한 성범죄자 연구에서 성범죄의 재범성과 특징을 연구대상자 자료 분석을 통해 접근할 것이다.

3. 정신분석학적 접근

Freud는 노출증과 관음증의 경향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한다. Freud는 모든 성도착에 있어서 성목적은 능동적인 면과 수동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의 생식기를 호혜적으로 보기 위하여 자기들의 생식기를 내보인다는 것이다(Freud, 1938). 남근기는 3세에서 6세 시기로 이때 아동은 성기를 통해 쾌감을 느끼며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이성 부모에게 무의식적 근친상간의 욕구가 생기는

데 대개 이 감정은 억제되며 동성의 부모에게 악의나 질투감정을 나타낸다(오민자, 2008). 이를 Freud는 소년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을 Oedipus complex, 소녀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얻으려는 하는 것을 Electra complex라 불렀고 이 시기에 Oedipus complex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성장 후에는 사회의 개혁을 주도하거나, 반사회적 행동과 범죄성향을 나타내며 ‘자신의 환자 중에서 종교성이 아주 강한 아버지 혹은 성직자의 아들 중에서 많은 범죄자들이 있다’고 하였다(홍성렬, 2002). 잠복기는 6세에서 12세 시기로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통해서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이 시기에 원자아, 자아, 초자아가 형성되고 근면함과 열등의 감정이 형성된다. 생식기는 12세에서 18세까지로 신체적 발달과 성인에서와 같은 의미의 성기에 관심이 생기며 성적욕구가 쾌락의 근거가 된다. 그 후 18세에서 60세까지는 생식기의 연속으로 본다(이수정, 2018).

정신분석이론에서는 개인의 어린 시절의 사건이나 정신적 외상이 장래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허경미, 2008).

성도착증의 원인을 정신분석학적 관점으로 설명할 때, 다음 요소들이 중요하게 논의된다. 첫째로는 초기 발달 경험 및 자아 기제이다. 두 번째로는 성도착증 발발 이전의 외상 경험 및 자존감의 조정이다. 먼저, 성도착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기 발달 경험으로써, 어린 시절의 어머니와의 관계, 학대 경험, 그리고 성적 경험을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퇴행적 자아 기제를 통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조운오, 2009).

Freud는 성도착에 대해 유아적 형태의 성(性)으로 퇴행하며, 고착된 것들이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하였고, 하나의 성도착 행위는 고착되고 의식화된 하나의 과정이 되는데, 이런 행위를 통해서만 성적인 절정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Freud, 1938).

Otto Fenichel의 전통적인 가설에 의하면, 생식기 접촉을 통한 성적인 절정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거세불안’이라고 한다. 따라서 성도착은 거세의 두려움 없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하며, 결과적으로 성도착 행동은 거세불안을 피하려는 방어기제로 사용된다(Howells, 1981; Kline, 1987). 타 연구자들은 이러한 이론만으로는 임상에서 나타나는 성도착증적 환상과 나타난 행동의 여러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도착과 관련된 다각적인 측면들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성도착증에서 핵심적이라고 한다면 소아기 외상적인 경험을 성인기 승리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과거의 외상적인 경험과 자존감을 조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아기에 부모로부터 받은 모욕에 대해 복수를 하겠다는 환상을 갖게 되며, 복수의 한 방편으로 성도착적인 환상이나 행동을 하는 동안 상대방을 인간으로 상대하지 않거나 모욕감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동향은 성도착증 행위자들의 다양한 정신과적 진단과 성격 형성을 통해 성도착증의 원인을 이해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신경증적 환자들은 성기의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성도착 행위를 하고, 경계성 성격장애자들은 자기소멸의 느낌에 저항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으므로, 성도착증을 보이는 개개인을 정신 역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도착증이 성도착자의 성격구조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한다(신희천, 2003).

연구대상자 분석 결과에서 가해자의 무의식적 행동의 원인을 정신분석적 원인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아동기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4. 인지행동치료(CBT)적 접근

인지치료(cognitive therapy)는 행동주의적 치료접근에서 발달하여 미국 Pennsylvania 대학의 Aaron T. Beck(1960)에 의해 개발된 구조화되며, 단기적이고, 목표 지향적 및 문제 중심적인 심리치료 방법이다. 초기에는 대부분 우울증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개발되었으나 그 효과가 인정되면서, 많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정교화 되고 그 적용범위가 확장되었다.

우리나라의 인지행동치료의 시작은 1980년대 중반 이후이며, 1990년대에 되어서 인지행동치료모형에 대한 연구와 특정증상에 대한 인지적인 행동치료기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인지적인 결정론의 입장에서 인간의 다양한 측면 중 인지, 즉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인간은 자신의 정서, 행동, 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스스로 선택한 것에 따라서 그동안의 행동양식과는 다르게 반응하고 그에 따라 인지를 변화시킴으로써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으며, 자신을 평가할 수 있고, 자신을 유지

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는 자신의 치료 입장을 지지하는 기반으로 Robert Plutchik(1970)의 정서이론을 수용하고 있다. Plutchik는 환경적인 자극들은 인지적으로 처리가 되며, 이러한 인지가 생리적인 각성과 주관적 감정을 야기하게 되고, 이들을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는 충동의 원천이 되며, 동기를 충족하거나 삶을 증진하도록 환경에 적응하게 한다고 하였다.

성폭력 가해자치료에서는 1990년대 이후로 다요인의 접근에 기초한 인지행동치료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초기에는 주로 성적 일탈성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불쾌한 증상을 유도하는 약물이나 전기 충격, 냄새 등을 활용한 혐오 치료 등 주로 행동수정에 초점을 둔 접근이 사용되었다(노일석, 2011). 이후 성폭력범죄자의 심리치료적 접근에 있어서 성적 일탈성 외에 대인관계 기술과 인지적, 감정적 요소들을 심리치료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성범죄자 치료에 있어 인지행동치료의 최근 접근은 198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 Marlatt(1982)의 재발방지 모델(Relapse Prevention Model)이다. 이는 중독행동, 특히 알코올 중독의 치료와 관리를 위해 개발한 것이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면서 치료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신기숙, 2016). Andrews와 Bonta(1998)가 개발한 위험성-욕구-반응성 모델(Risk, Needs, Responsibility Model, RNR) 및 Ward와 Hudson의 좋은 삶 모델(Good Lives Model, GLM) 등과 통합적으로 접목하여 성범죄자의 재범방지에 기여하고 있다(신기숙, 2016).

통합적 접근으로 부터 진행되는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인지적 왜곡, 공감능력향상, 대인관계 기술, 친밀감 형성, 자존감 향상, 감정관리, 애착유형,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 향상, 성적인 공상이나 일탈된 성적 선호에 대한 수정, 재발방지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또한 이 같은 치료내용 외에도 긍정적인 치료적 효과를 위해 건강한 치료적 동맹(Therapeutic alliance)을 강조하고 있으며 치료자의 태도로써 공감, 진실성, 따뜻함, 사회·문화적 배경과 상황에 대한 유연성과 민감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김근국, 2015).

가해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접근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며, 인지행동치료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5. 해결중심치료 접근

해결중심모델은 사회구성주의 철학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치료적 접근방법으로, 미국 위스콘신 주의 밀워키에 있는 단기가족치료센터(brief family therapy center: BFTC, 1978)에서 Steve de Shazer와 김인수(Insoo Kim Berg) 부부가 주축이 되어 개발한 치료모델이다. 해결중심치료 모델은 M. H. Erickson의 영향을 받았으며, 내담자의 삶에 문제가 부각되지 않거나 적게 일어나는 예외상황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이 이미 내담자에게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고, 강점과 자원, 성공했던 경험 그리고 능력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다.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찾기보다는 잘된 것과 그것에 대한 활용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problem)보다는 해결(solution)을 위한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치료의 목표로 삼는다. 1982년부터 해결중심단기치료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해결중심치료에서 해결대화를 만들어 내고, 유지하는 상담자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상담자가 해결중심질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와, 둘째, 재명명 등의 서술(formulation)을 포함한 해결에 중점을 둔 언어적 선택(lexical choice)을 활용하는 경우이다(최중진, 2017).

성폭력사범에 대한 가해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대부분 집단프로그램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생 스스로 자신이 문제해결방법을 찾아나가는 데 있어 해결중심적인 접근 방법이 도움이 되고 있다(채중후, 2012). 또한 비자발적인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치료에서 해결중심치료는 참여 동기가 낮은 집단에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해결중심모델은 인간을 긍정적 대상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내담자는 일상생활에서 한 번이라도 성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능력이 생긴다고 믿는다. 내담자는 이미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 이미 알고 있는 문제해결 방법을 본인 스스로가 발견해 낼 수 있다. 대상자의 자원을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목표 수립 및 실천을 통해 성공경험을 하게 하여 자존감 및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병리적인 측면 대신에 대상자의 건강한 면, 즉 긍정적인 면, 장점 및 강점 그리고 성공했던 경험을 계속 탐색하면서 이들을 인정하며 격려하는 접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손상된 자아존중감의 회복 또는

향상으로써 문제해결능력이 배양된다. 그리고 작은 변화를 탐색하고 탐색된 변화를 인정하고 더불어 칭찬을 하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자신에게 용기를 줌으로써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준다(채종후, 2012).

작은 변화를 의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여, 교정기관에서 출소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송성자, 2002). 해결중심모델에서 치료자의 역할은 당면한 문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만들고 해결방안을 구축해 나가도록 내담자와 협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담자가 중요시하고 변화하기를 원하는 바를 목표로 설정해야하며 그 설정된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다. 내담자가 자신의 목표를 알 수 있도록 상황을 제공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성공감을 갖도록 하여 그 성공감이 내담자의 능력이 되도록 내담자가 갖고 있는 강점과 자원을 활용한다. 치료자는 내담자의 문제 해결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내담자와의 면담 이전의 변화에 대해 질문을 한다. 질문은 예외질문, 기적질문, 척도질문, 대처질문, 관계성 질문 등을 사용하고, 질문을 통해 내담자의 성공적 경험을 부각시킨다(송성자, 2002).

해결중심모델은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내담자 저항을 낮추고 단기간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단기간 문제 해결로 인해 약물남용자, 우울증 환자, 성인 정신과 환자, 산모와 어린 자녀, 조현병 환자 등 다양한 대상과 영역에 적용되며,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더불어, 학교 부적응, 사회 부적응, 청소년기 문제, 보호관찰 대상자, 교정시설 수용자, 학대아동 등 청소년 대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용성을 확인할 만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최중진, 2019).

해결중심모델의 성폭력 가해자 심리치료프로그램의 적용으로 재범방지와 원인 분석에 접근할 수 있다.

6. 최근 적용 모델 및 이론

1) 좋은 삶 모델(GLM)

Ward는 인간의 노력에 대한 연구(Emmons, 1999; Schmuck & Sheldon, 2001)에서 좋은 삶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원래 인간의 자아실현을 강조

하는 Maslow(1968)의 개념에서 시작되었다. Ward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영역에는 아홉 가지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 아홉 가지 영역은 ① 정신적, 육체적, 성적인 부분에서 건강한 상태 ② 한두 가지 분야의 지식 쌓기 ③ 여가 활동 ④ 일 ⑤ 내적인 평온 ⑥ 창의성 ⑦ 대인관계 ⑧ 독립성 ⑨ 숙달이다.

Ward도 Maslow와 마찬가지로 자아실현을 위한 노력을 인간의 평생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관점은 성폭력범죄자의 심리치료에도 매우 중요하여 내담자가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수료한 이후에도 범죄 없는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한다. 좋은 삶 모델(GLM)은 내담자에 대한 치료가 효과적으로 실시되었을 때 범죄 유발요인들을 막아줄 수 있는 인생 계획을 제공해 주며, 범죄를 유발시키는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강점을 활용하는 접근방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기에 좋은 삶 모델을 성폭력 가해자에게 적용할 때 범죄 유발요인과 같은 문제점을 무시하지 않고, 문제점을 제거하는 기술인 인지, 행동, 정서조절기술 등을 키우도록 강조하고 있다. 좋은 삶 모델(GLM)은 각각의 개별 분야별로 성범죄자 개개인이 노력해야 하는 인간 발달과정의 연속선상에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알게 하며, 현재보다 큰 성취를 방해하는 장애물, 예를 들어 범죄유발요인 등을 극복하기 위해 성범죄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남은 인생 동안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Ward는 좋은 삶 모델(GLM)과 위험성, 욕구, 반응성(RNR)원칙들을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보았다. Marshall & Marshall(2012)도 좋은 삶 모델(GLM)의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강점이 개발되면, 위험성, 욕구, 반응성(RNR)원칙에서 확인된 범죄 유발요인도 효과적으로 다루어진다고 한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성폭력 가해자 심리치료프로그램에 도입된 최신이론인 좋은 삶 모델은 연구대상자의 치료 후 효과성 검증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동기강화 면담(MI)

William R. Miller 박사는 뉴멕시코대학교 교수이며 심리학 및 정신의학자로, 1983년 Behavioral Psychotherapy 학술지와 1991년 Stephen Rollnick와

함께 저술한 동기강화면담, 제1판에서 동기강화면담을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Miller 박사는 광범위한 변화에 대해서 심리학 분야와 더불어, 특히 중독 관련 문제의 치료와 예방 연구에 집중해 오고 있다.

동기강화 면담(Motivation Interview, MI)은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의 치료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변화에 대한 자발적 동기가 치료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치료에 참여하기 전에 개인의 참여의지와 동기를 고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치료과정에서도 매 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왜 해당 활동이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도록 한다. 지속적인 동기강화 전략으로는 치료 전 동기강화와 더불어 좋은 삶 모델(GLM)에 충실한 치료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3) 긍정심리학적 접근

미국심리학회(APA) 회장이었던 Martin Seligman에 의해 시작되었다.

정신건강을 행복하고 충만한 삶의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행복의 과학적 구성 요소 즉, 긍정 정서로 인한 즐거운 삶, 적극성에서 오는 적극적인 삶 그리고 의미가 있는 의미 있는 삶을 들 수 있다. 행복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긍정심리학은 단일 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여러 이론을 결합하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자기 효능감 이론, 희망 이론, 자기 결정 이론, 음미 이론, flow 이론, 강점 이론 등 긍정심리학의 기초 이론은 여러 이론의 통합이다.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의 관점은 정신건강을 결함과 손상의 부재상태가 아니라 개인의 강점과 능력이 최대한 발현되는 상태로 이해한다. 즉, 긍정심리학의 관점은 인간의 결함과 장애에 초점을 맞추는 질병모델과 달리 긍정적 성품과 강점에 초점을 맞추는 성장모델을 추구한다. 따라서 부적응적 장애나 증상의 제거라는 소극적인 목표를 추구하기보다 행복과 자기실현이라는 적극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이러한 접근은 ‘좋은 삶’의 계획을 세우고 실현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교육 참여자들에게 희망을 가지게 하고 사회적응력을 높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적 치료접근은 정신과적 진단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 대상자의 참여기준이 매우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대상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다.

다양한 증상을 지닌 환자들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에서 특정 증상이나 진단을 목표로 삼는 치료프로그램 이상의 것이 요구될 때 사용 가능하다. 문제대처 능력의 저하 및 심리사회적 위축,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들에게 기존의 약물치료와 심리치료프로그램의 한계로 인해 적용되고 있다. 긍정심리 치료는 강점 활용, 긍정적 정서와 대인관계를 강조하여 삶의 공통 목표인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삶의 실제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대안적 측면에서 긍정심리학적 치료는 성폭력 가해자 중 특히 공연음란죄 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에 적용 가능할 것이다. 이는 연구대상자 분석에서 충동적 경향성에서 찾을 수 있다.

7. 통계 자료를 통한 성범죄관련 현황

성범죄관련 통계 자료 분석을 통해 재범 방지와 재사회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성폭력 피해자 확산을 미연에 차단한다.

자료는 2018범죄백서(법무연수원, 2019), 2020성범죄백서(법무부, 2020), 범죄분석통계(대검찰청, 2019), 2019교정통계연보(법무부, 2019), 2020법정신의학연구(법무부, 2019), 범죄피해자 지원 길잡이(법무부, 2014), 2018경찰백서(경찰청, 2019), 국가통계포털(Kosis,2020) 그리고 성범죄관련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 등을 통합 분석하였다.

2017년도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죄명별 인원에서 성폭력관련 범죄자는 전체 인원의 15.2%로 사기·횡령 21.1%로 뒤를 잇고 있다(법무부 교정본부, 2018). 강력범죄자 연령별 구성비에서는 성폭력관련 범죄자의 경우 31~40세가 20.1%를 가장 많고, 이어서 41~50세가 17.9%로 나타나고 있다(대검찰청, 2018). 강력범죄자 교육정도별 구성비에서는 성폭력관련 범죄자는 대학교 졸업 이상이 34.7%로 고학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뒤를 고등학교 31.6%를 나타나고 있다(대검찰청, 2018). 전과횟수 구성비에서는 성폭력 범죄 초범이 37.2%로 가장 많았으며 4범 이상이 19.9%로 뒤를 이었다(대검찰청, 2018).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현황에서는 13세 이상이 95.8%로 나타나고 있다(대검찰청, 2018).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 기간경과별 재범 현황에서 2년 이내 재범 31.8%이며 3년 이내가 13.7%로 나타나고 있다(법무부, 2018).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출소자의 죄명별 재복역인원 현황에서 2013년 출소자의 죄명별 재복역율은 마약류(47.2%)가 가장 높고, 절도(46.0%), 폭력행위(33.0%), 강도(21.6%), 성폭력(18.7%), 과실범(16.2%)의 순이었다(법무부, 2018).

2017년 전국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57,298명으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 대비 1일 평균 수용인원 비율은 0.11%, 여성 수형자의 비율은 6.3%, 죄명별로는 사기·횡령이 21.1%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성폭력 15.2% 순이다(법무연수원, 2019). 연령별로는 인구 고령화를 반영하듯 60대 이상 비율이 2016년 처음으로 10%를 넘어선 이래 2017년 11.6%를 기록하여 급격한 노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0대 20.9%, 40대 26.9%, 50대 25.8%이며 60대 이상 11.6%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형명·형기별 특성에서는 징역형 1년 이상 3년 미만이 36.5%로 제일 많고 징역형 20년 이상 수형자도 1.6%를 차지하고 있다(법무연수원, 2019). 수형자 출소 사유는 형기종료 37.1%, 노역종료 29.2% 순이며, 가석방은 13.2%이다(법무부, 2018).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을 통한 공연음란죄 가해자의 재범원인과 연구대상자 분석을 통한 병리적 영향을 분석하여 가해자의 재범방지를 통한 피해자 양산을 막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Ⅲ. 연구문제

본 연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공연음란죄 범죄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성별, 연령, 결혼여부, 직업, 학력, 약물복용 여부, 복용약물 종류) 다른 성폭력 범죄자 유형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법무부 교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가해자 심리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에서 나타난 공연음란죄 범죄자에 대한 효과성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

연구문제 3. 연구대상자의 기술통계분석(구속 사유)에 따라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자와 다른 변별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가?

본 연구 중 <연구문제 1>에서는 공연음란 범죄자의 재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을 실시한다. 성별, 연령, 결혼여부, 직업, 학력 등을 분석하여 유사점을 분류하고 기존 통계 자료와 비교 분석한다. 범죄자를 직접 대면하는 교정 현장에서 만난 심리치료프로그램 대상자인 성폭력 가해자들 과반수가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이에 연구대상자의 치료 약물 복용 여부와 복용하는 약물을 분석한다. 약물의 특성은 ‘대한민국 약전’ (신일서적, 2019.1.29.)과 인터넷 ‘MEDINAVI’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참고한다.

본 연구를 위해 법무부 교정기관에서 실시한 성폭력 가해자 심리치료프로그램 효과성을 분석하여 공연음란죄 범죄행위자의 특징을 찾고, 적절한 치료프로그램 적용여부를 찾는다.

이에 본 연구 중 <연구문제 2>에서는 법무부 교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가해자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표Ⅲ-1> 과 같다.

〈표Ⅲ-1〉 성폭력 가해자 심리치료 과정

구 분		기본 과정	집중 과정	심화 과정
대상	재범위험성	저	중	고
	이수명령 시간	100시간 이하	200시간 이하	200시간 초과
잔 형 기		3월 이상	5월 이상	8월 이상
치료기간		100시간	200시간	300시간

기본과정 대상은 재범위험성이 ‘저’ 인 이수명령 100시간 이하인 성폭력 관련 수형자이며, 집중과정은 재범위험성 ‘중’ 인 이수명령 200시간 이하이며, 심화과정은 재범위험성 ‘고’ 인 이수명령 200시간 초과인 수형자이다. 그 과정 중 기본과정 100시간을 이수하기 전과 후의 7개 항목의 척도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기본과정 척도 7개 항목은 자기존중감, 강간통념, 분노, 충동성, 아동성추행, 고독감, 성대응 항목이다. 또한 프로그램 시작 전과 후의 효과성을 분석한다. 〈표Ⅲ-2〉 는 심리치료 운영과정이다.

〈표Ⅲ-2〉 성폭력 가해자 심리치료 운영

구 분	기본 과정	집중 과정	심화 과정
치료기관	전 교정기관	집중기관	심리치료센터
치료기간	1~3개월	3개월	6개월
치료횟수	연 3회 이상	연 2회 이상	연 2회
치료인원	10명 내외		
치료내용	왜곡된 성의식 수정, 범죄원인 분석 및 대처훈련, 피해자 공감 및 책임 수용, 대인관계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 등		
치료강사	내부강사(전담 직원) 및 외부 강사		

연구대상자인 공연음란죄 범죄자는 성폭력범죄 가해자 중에서 가장 소수의

인원이며 형량도 낮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 않는다는 것과 가해자들이 교정기관에 장시간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낮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공연음란죄 피해자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통해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충격은 타 범죄 피해자들에 비해 적지 않지만 신체적 피해가 약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또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분석을 통해서 대상자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초석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자의 구속 원인을 분석하여 재범원인을 모색하고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본 연구 중 <연구문제 3>에서는 연구대상자의 구속 사유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다. 공연음란(노출행위)죄로 구속된 사유를 분석하고 통계 자료와 비교하여 유사점을 찾는다. 욕구는 사람을 움직이는 심리적 동인이며 충동이고 욕망이다. 욕구는 유기체이다. 인간 내부에서 어떤 결핍이나 과잉 현상이 생길 때에 정상인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다. 구속 사유를 통해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IV. 방법론

1.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2018년 상반기 국내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 과정에 연구주제로 선정되어 정부재원을 지원받아 수행하였다. 수집된 개별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었으며, 개별적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는 범죄행위로 경찰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전체 공연음란 범죄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고, 형기가 짧아 단시간적 접근의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으로 가장 접근 가능한 표본을 선정하였다. 2019년도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교정시설 53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성폭력범죄 관련 수용자 9,510명 중 법원으로부터 이수 명령집행 명령 대상자의 전반적인 범죄사항을 입력하여 작성하는 통계자료에 이수명령 집행 및 심리치료프로그램 진행 등으로 접근이 가능한 공연음란죄명의 수용자 32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정신병질 특성, 구속 사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백분율과 빈도,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사전 및 사후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은 대응표본 통계량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2. 성폭력 가해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분석

성폭력 가해자 심리치료프로그램 중 기본과정은 좋은 삶 모델(Good Lives Model: GLM) 접근을 토대로 한 구조화된 프로그램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역동적인 위험요인에 초점을 둔 3개의 모듈로 구성된다. 한 집단에 10여 명의 대상자가 참가하며 치료자는 2명(주 및 보조치료자)이 투입된다. 치료자는 임상심리사이며 성범죄자 치료관련 교육을 이수한 내부 운영자 또는 외부 전문가가 진행한다.

기본과정 구성 주요내용은 <표Ⅳ-1>과 같다. 1모듈에서는 동기강화 및 사건분석으로 12회기로 구성하며, 오리엔테이션 및 프로그램 내용, 집단치료에 대한 이해, 자기 사건 발표, 재범방지 의지 다지기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서약서, 자기소개, 친밀감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이 포함된다.

〈표Ⅳ-1〉 심리치료 프로그램 기본과정 주요내용

모듈	회기	주제	모듈	회기	주제
1단계 동기 강화 및 사건 분석	1	프로그램 및 자기소개	3단계 행복한 미래 만들기	26	성폭력관련 법률 이해
	2	미래 바라보기		27	중독(알코올)의 이해
	3	목표세우기 1		28	좋은 삶 계획하기 1
	4	목표세우기 2		29	좋은 삶 계획하기 2
	5	의사소통 기술 향상		30	마무리
		6	자기 및 사건이해 1		
		7	자기 및 사건이해 2		
		8	자기 및 사건이해 3		
		9	사건발생 과정이해		
		10	재범유발요인 분석·대처 1		
		11	재범유발요인 분석·대처 2		
		12	재범유발요인 분석·대처 3		
2단계	왜곡된 성의식 수정	13	성에 대한 이해		
		14	왜곡된 성의식 수정		
		15	책임 있는 성행동		
		16	건강한 성		
	자기 관리	17	감정조절능력 향상		
		18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19	문제해결능력 향상 1		
		20	문제해결능력 향상 2		
	대인관계 능력향상	21	대인관계능력 향상 1		
		22	대인관계능력 향상 2		
		23	이성과 친해지기		
		24	공감능력 향상		
		25	피해자 공감		

2모듈에서는 왜곡된 성의식 수정과 문제해결능력, 공감능력 향상과 피해자 공감하기, 스마트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보기 같은 활동을 진행한다. 이

모듈에서는 성에 대한 이해, 책임 있는 성행동, 감정조절능력 향상, 스트레스 대처 능력, 이성관 친해지기 등 실천적 목표를 연습하도록 한다.

3모듈 ‘행복한 미래 만들기’는 출소 후 삶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위한 모듈로 장기 및 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며,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가꾸기 위한 여러 가지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자신의 삶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및 자신의 위험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안내하도록 한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좋은 삶 모델 접근의 방향에 따라 3개의 모듈이 진행되며, 집단의 역동에 따라 모듈의 순서는 일부 조정 가능하고, 모듈별 회기에 있어서도 1~2회기 정도 확장하여 탄력성 있게 조절 운영할 수 있다(김용희, 2019).

성폭력 가해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약 5년 동안 아무런 추가 개입 없이 출소하여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면 시설 내 심리치료의 효과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유지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소 전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복습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에 심리치료 프로그램 유지과정을 계획하고 있다. <표Ⅳ-2>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유지과정의 주요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표Ⅳ-2〉 심리치료 프로그램 유지과정 주요내용

모듈	회기	시간	주제
1단계 동기 강화	1	2	소개하기
	2	2	다시 시작하기
2단계 위험 및 보호요인	3	2	보호요인 인식하기
	4	2	위기(난관)예측하기
	5	2	위험요인 인식하기
	6	2	재범시나리오 작성하기
3단계 좋은 삶 지도	7	2	위기(난관) 대처하기(1)
	8	2	위기(난관) 대처하기(2)
	9	2	다짐하기

프로그램의 목적은 성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 유지를 통한 재범방지와 출소 후 삶에 대한 희망감 고취에 있다. 대상자는 성폭력사범

중 심리치료 프로그램 심화과정(6개월, 300시간) 수료자 중 출소 예정일 1년 이내인 수형자로 하며, 집단원은 8명 이내로 한다. 운영시간은 총 20시간으로 9회기 18시간과 사전/사후 면담 각1시간으로 한다. 진행은 2명의 전문강사 또는 내부강사로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출소 후 삶에 대한 구체적 접근에 초점을 둔 3개의 모듈로 구성된다.

3. 심리검사 분석(기본과정 7개 척도)

심리치료프로그램 기본과정으로 측정도구로는 7개의 척도(151문항)를 사용하였으며, 사전검사는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실시, 사후검사는 프로그램 종료 후 실시한다. 개인차는 있으나 설문 완성 시간은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자기존중감(Rosenberg's Self-Esteem Measure(Rosenberg, 1965))

- 문항 구성 : 10문항
- 척도설명 : Rosenberg(1965) 개발하고 전병제(1974)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개념의 특정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반적 자존감을 측정한다.
-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낸다.
- 채점방식 : 1~4점 채점(1점: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 총점 10~40점, 3,5,8,9,10번은 역채점한다.
- 전병제(1974)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5이었다.

강간통념척도(이석재, 1999)

- 문항 구성 : 20문항
- Burt(1980)가 개발하고 이석재(1999)가 수정하고 보완하여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 점수가 높을수록 강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김용희, 2019).
- 강간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다. 강간행위, 강간 피해자 및 강간범에 대한 일반인의 신념이나 의견, 편견과 고정관념, 거짓된 신념을 측정한다.

-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관계가 된다.
- 하위요소 : 피해자의 성에 대한 경험, 여성 행동에 대한 잘못된 오해, 성폭행 피해의 책임을 귀인하는 것, 피해자 경솔과 피해자의 강간정당화 및 피해자의 음란성 그리고 출신배경으로 나누어진다.
- 강간통념은 성폭력과 성행동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난다.
- 채점방식 : 1점~9점, 총점 0점~180점, 리커트식 9점척도(1: 매우부정 ~ 9: 매우긍정)로 구성한다.
- 연구자료 : 대학생집단 평균 4.15 ± 1.09 , 범죄자 평균 5.06 ± 1.40 , 성범죄자 총합 85.21 ± 34.88 (평균: 5.7), 일반범죄 총합 69.19 ± 32.69 (평균: 2.7)
- 총합 : 임상적(우울, 자살의도, 중독 등을 고려할 때 가끔 사용한다.),
- 평균 : 학술적, 통계분석 시 많이 사용한다.
- 이석재(1999)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이었다.

분노표현척도-상태특성(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STAXI-K(전경구 등, 1997))

- 문항 구성 : 24문항
- 분노표현에 대한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Spielberger 등(1988)이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를 1997년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 척도설명 :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의 세 가지 양상으로 분류되며,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의 행동인 반면, 분노통제는 기능적인 분노표현 행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채점방식 : 1점~4점 채점(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
- 하위유형 : 각 유형 내적 합치도, 전경구 등(1997)의 연구에서 문항 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3(분노표출), .78(분노억제), .79(분노통제)이었다.
- 분노표출(anger-out) : 2,7,9,12,14,19,22,23/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상으로 화가 나면 화를 걸어로 드러내는 것으로, 화난 표정을 지어 보인다가

- 나 욕을 하는 것, 말다툼이나 과격한 공격행동을 보이는 것 등이 그 예이다.
- 분노억제(anger-in) : 3,5,6,10,13,16,17,21/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상으로 화는 나있지만 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화가 나면 오히려 말을 하지 않거나 사람을 피하고 속으로만 상대방을 비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분노통제(anger-control) : 1,4,8,11,15,18,20,24/ 화가 난 상태를 자각하고 감독하면서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책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충동성 척도(Barratt Impulsiveness Scale II (이현수, 1992))

- 문항 구성 : 23문항
- Barratt(1959)이 개발한 충동성 척도-II를 이현수(1992)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 척도설명 :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적이다, 신뢰도(Cronbach's α) $\alpha = .74$
- 채점방식 : 0점~4점 채점되며, 리커트식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항상 그렇다)로 구성된다.
- 하위유형 : 인지충동성 6문항, 운동충동성 8문항, 무계획 충동성 9문항
- 인지충동성 : 한 가지의 일에 몰두하기가 힘들며 신중하게 생각하는 일 또한 잘 하지 못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싫어하는 등의 경향성을 측정한다(5*,8*,11*,14,16,21).
- 운동충동성 :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거나 한군데 오래 앉아 있기가 힘들고, 앞 뒤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경향성을 측정한다(2,4*,7,10,13,15,18,22).
- 무계획 충동성 : 일을 시작하기 전 세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며 한 가지 일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일을 시작하는 등의 특징을 측정한다(1*,3*,6*9*,12,17,19*,20,23*).
- *역채점한다.
- 점수가 높을수록 계획적이지 않고, 일처리를 신중하게 하지 못하며, 결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행동하는 충동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아동성추행 척도(Molest Scale (Bumby, 1996))

- 문항 구성 : 38문항
- 척도설명 : 아동에 대한 성추행을 허용하는 왜곡된 태도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에 대한 성추행을 허용하고, 이를 지지하는 왜곡된 신념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 채점방식 : 4점 척도이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
- 점수범위 : 1~4점 채점
- Bumby(1996)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s α)는 .94이다.

고독감 척도(UCLA Loneliness Scale(Russell, Peplau, & Cutrona, 1980))

- 문항 구성 : 20문항
- Russell, Peplau 와 Cutrona(1980)가 개발한 UCLA Loneline Scale을 김옥수(1997)가 한국형으로 표준화하여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 척도설명 : 점수가 높을수록 고독감에 대한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 사회적 지지자원 부족, 친밀감 부족, 소속감 부족 등을 측정한다.
- 척도에서 외로운 사람은 이론적으로 고독감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지만(우울, 불안, 버림받은 느낌, 공허감, 무망감 및 고립감 등) 고독감과 관련이 없는 정서와는 관계가 없었다(창조성, 감성적인, 놀람, 사려깊음 등)
- 기분 및 성격을 측정하는 척도보다는 고독감을 측정하는 척도와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 채점방식 : 1점~4점 채점(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자주 그렇다), 1, 5, 6, 9, 10, 15, 16, 19, 20 역채점한다.
- 김옥수(1997)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계수(Cronbach' s α)는 .93이었다.

성을 이용한 대응척도(Coping Using Sex Inventory(Cortoni & Marshall, 2001))

- 문항 구성 : 16문항

- 갈등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적인 것과 관련된 생각 또는 행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강제적 성적행동에 동의하는지를 측정한다.
- 척도설명 : 아동 또는 성인과의 관계에서 성과 관련된 항목에 동의와 비동의를 포함하는 척도이다.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반응방식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하위유형 : 4가지 유형의 성적행동(환상fantasies, 자위masturbation, 포르노 활용pornography use, 실질적인 파트너와 성적행동actual sexual behavior with a partner)을 설명하고 있다.
-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 채점방식 : 1-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스트레스상황 혹은 곤란한 상황에서 각 항목에 얼마나 자주 관련되는지 체크. 전체 점수를 합한다.
- Cortoni와 Marshall(2001)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 s α)는 .88이었다.

V. 연구결과

1. 연구문제 1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V-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대상자 모두 성별은 남성이었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34.4%를 차지하여 가장 다수 집단으로 나타났고, 50대가 21.9%로 그 뒤를 이었다. 20대, 30대, 60대는 각각 9.4%, 15.5%, 15.6%로 확인되었으며, 70대는 3.1%로 가장 적었다. 결혼여부에서는 미혼이 65.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V-1> 인구사회학적 빈도 분석(성별, 연령, 결혼 여부)

변수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32	100.0
연령 (세대)	20	3	9.4
	30	5	15.6
	40	11	34.4
	50	7	21.9
	60	5	15.6
	70	1	3.1
	전체	32	100.0
결혼 여부	미혼	21	65.6
	기혼	11	34.4
	전체	32	100.0

<표 V-2>의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에서는 건설일용직이 15.6%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뒤를 단순 아르바이트 6.3%로 이어졌다. 고정된 직업이 없이 생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 -2〉 인구사회학적 빈도 분석(직업)

	변수	빈도	퍼센트
직업	건설일용직	5	15.6
	공장 부장	1	3.1
	공장 직원	1	3.1
	굴삭기 기사	1	3.1
	기초생활 수급자	1	3.1
	노래방 관리	1	3.1
	노점상	1	3.1
	단순 아르바이트	2	6.3
	목공소 근무	1	3.1
	목수	1	3.1
	무선인터넷 설치	1	3.1
	무직(건강상)	1	3.1
	무직(병원 입원)	1	3.1
	무직(정신증)	1	3.1
	보조출연	1	3.1
	선원	1	3.1
	운전기사	1	3.1
	의류공장 근무	1	3.1
	인테리어 회사 직원	1	3.1
	일반 회사원	2	6.3
	일용직근로	1	3.1
	식당 주방 근무	1	3.1
	주방장	1	3.1
	치과의사	1	3.1
	커피점 부점장	1	3.1
	판매업	1	3.1
전체	32	100.0	

<표 V -3>의 교육수준(학력)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이 31.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4년제 대학교 졸업 15.6%로 나타냈다.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순으로, 12.5%, 9.4%로 나타났고, 2년제 대학 중퇴와 대학원 졸업은 모두 3.1%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표 V -3> 인구사회학적 빈도 분석(학력)

변수		빈도	퍼센트
학력	2년제 대학중퇴	1	3.1
	4년제 대학졸업	5	15.6
	고등학교 졸업	10	31.3
	고등학교 중퇴	3	9.4
	고졸 검정	2	6.3
	대학원 졸업	1	3.1
	중학교 졸업	4	12.5
	중학교 중퇴	2	6.3
	초등학교 졸업	2	6.3
	초등학교 중퇴	2	6.3
	전체	32	100.0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해보면 40대 미혼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설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남성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연구대상자의 병리적 특성 분석

연구대상자의 병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V -4>, <표 V -5>과 <표 V -6>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약물복용여부에서는 59.4%가 치료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표 V -4> 약물 복용 여부 빈도 분석

변수		빈도	퍼센트
약물 복용	미복용	13	40.6
	복용	19	59.4
	전체	32	100.0

복용증상에 대한 것은 우울증, 위장질환이 2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조현병과 불안장애 그리고 간질(뇌전증) 15.6%를 나타냈다. 양극성장애, 두통이 12.5%였으며, 수면제, 관절염 약물 복용에서는 9.4%, 공황장애, 강박장애, 알코올질환, 심장질환에서 6.3%로 뒤를 이었다. 그 외 분노조절, 피부질환, 고혈압, 치핵질환, 중이염, 파킨슨병에서 3.1%로 나타났다.

〈표 V-5〉 복용 약물 빈도 분석 1

변수	빈도	퍼센트	
우울증	무	24	75.0
	유	8	25.0
	전체	32	100.0
위장장애	무	24	75.0
	유	8	25.0
	전체	32	100.0
조현병	무	27	84.4
	유	5	15.6
	전체	32	100.0
불안장애	무	27	84.4
	유	5	15.6
	전체	32	100.0
간질(뇌전증)	무	27	84.4
	유	5	15.6
	전체	32	100.0
양극성장애	무	28	87.5
	유	4	12.5
	전체	32	100.0
두통	무	28	87.5
	유	4	12.5
	전체	32	100.0
수면제	무	29	90.6
	유	3	9.4
	전체	32	100.0
관절염	무	29	90.6
	유	3	9.4
	전체	32	100.0
공황장애	무	30	93.8
	유	2	6.3
	전체	32	100.0
강박장애	무	30	93.8
	유	2	6.3
	전체	32	100.0

연구대상자의 복용 약물의 특성은 ‘대한민국 약전’ (신일서적, 2019.1.29.)

과 인터넷 ‘MEDINAVI’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표 V-6〉 복용 약물 빈도 분석 2

변수		빈도	퍼센트
심장 질환	무	30	93.8
	유	2	6.3
	전체	32	100.0
알코올 질환	무	30	93.8
	유	2	6.3
	전체	32	100.0
분노 질환	무	31	96.9
	유	1	3.1
	전체	32	100.0
피부 질환	무	31	96.9
	유	1	3.1
	전체	32	100.0
고혈압	무	31	96.9
	유	1	3.1
	전체	32	100.0
치핵 질환	무	31	96.9
	유	1	3.1
	전체	32	100.0
중이염	무	31	96.9
	유	1	3.1
	전체	32	100.0
파킨슨	무	31	96.9
	유	1	3.1
	전체	32	100.0

빈도 분석에서 나타난 가장 많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우울증관련 치료 약물이었다. 우울증은 양극성장애(Bipolar disorder)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감정질환(Affective disorder) 또는 기분장애(Mood disorder)라고 한다. 세계적으로 6%이상에서 발병되고 있으며, 가장 흔한 정신질환 중 하나이다. 또한 주요 우울증 질환(Major depressive disorder)으로도 불리며, 저하된 기분상태(Lowered mood) 및 모든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의 감소(Decreased interest or pleasure in all activities)가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뇌 안

의 세로토닌(Serotonin),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 등의 신경전달물질의 감소가 발병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울증의 신경과학적 기전은 '모노아민 가설(Monoamine hypothesis)'이 있다(허경미, 2008).

모노아민은 세로토닌 또는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신경전달물질로서, 뇌의 여러 영역에 약리적으로 작용하여 전반적인 뇌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울증 또는 기분장애의 발병 및 치료과정과 모노아민 신경전달물질의 관련이 높다는 것이 제시되었다(이지숙, 2019).

우울증 질환환자에게 항우울제 치료약물을 투여했을 때, 뇌 안의 노르에피네프린 및 세로토닌 기능은 매우 빨리 올라가지만, 실제로 우울증 증상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단시간이 아닌 수주에서 수개월의 지속적인 투약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위장장애에 대한 약물복용은 구속 후 복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구속에 대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으로 타 죄명으로 구속된 수용자에게서 나타나는 경우와 다르지 않기에 특이사항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을 분석한 결과에 나타난 것에서 조현병, 불안장애, 간질(뇌전증), 양극성장애, 공황장애, 알코올질환 등 정신관련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연음란(노출행위)죄 발현이 기저질환과의 개연성을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연구문제 2

1) 연구대상자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연구대상자의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을 위해 <표 V-7>의 대응표본 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은 재판을 모두 마치고 형이 확정된 후 교육과정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법무부 교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가해자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중 기본교육 100시간을 이수하기 전과 이수한 후의 7개 항목의 척도를 검사한 결과를 비교하여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7개 항목인 자기존중감, 강간통념, 분노, 충동성, 아동성추행, 고독감, 성대응에서 프로그램 시작 전의 검사와 프로그램을 마치고 난 후의 효과성 검사척도를 분석하였다.

<표 V-7>에서 강간통념 유의도에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성폭력 심리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이 강간통념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노와 충동성척도는 사후검사에서 상승하였고, 성대응에서는 척도가 하락하였다.

<표 V-7> 프로그램 대응표본 통계량 분석

프로그램 사전 및 사후 검사		평균	SD	N	t	p
자기존중감	사전 사후	-.406	5.429	32	-.423	.675
강간통념	사전 사후	8.188	23.131	32	2.002	.054*
분노	사전 사후	-.094	8.449	32	-.063	.950
충동성	사전 사후	-.125	8.155	32	-.087	.931
아동성추행	사전 사후	.969	11.888	32	.461	.648
고독감	사전 사후	.750	5.634	32	.753	.457
성대응	사전 사후	.156	3.717	32	.238	.814

*: $p < .1$

이 결과에서 일반적인 성폭력범죄 가해자의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사후 척도의 변화와 대비되어 효과성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프로그램 적용이 대상자 특성에 맞게 적용된 것이 아닌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연구대상자가 성폭력범죄 가해자 중에서 가장 소수의 인원인 것과 형량이 적다는 것에서 도외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연음란죄 피해자와 관련한 선행 논문에서 나타났듯이 공연음란(노출행위)죄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충격은 타 범죄의 피해자들에 비해 적지 않지만 신체적 피해가 약하다는 이유로 간과되고 있다.

2)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선 방향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적 처벌은 범죄자의 행위로 인해 사회에 야기된 해악을 낮출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의적이고 불명확한 법체계와 지나친 처벌은 합리적 판단의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보았다(민수홍, 2017). 2015년 형사정책연구원 윤정숙 외 6명의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방안(3) -치료프로그램 이수자의 사후 관리 방안 연구 - ” 선행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설 내 및 사회 내 심리치료프로그램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심리치료프로그램이 성범죄자의 개별적 위험성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윤정숙, 2015).

예산과 인력의 보강과 같은 당위적인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치료에 관련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료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윤정숙, 2015). 독일의 경우에는 성범죄자의 분류와 그 위험성의 평가, 치료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사후 관리 등이 연방 형법에 매우 체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윤정숙, 2015). 특히, 사전 심리단계에서 성범죄자의 감정에 대한 기준이 매우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성범죄자의 분류 기준 및 감정이 명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어 향후 진행되는 치료 과정 및 치료 과정 후의 관리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은 우리도 본 받아야 한다(윤정숙, 2015).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명확한 범행의 동기가 없는 경우가 다수이며 범죄 발생은 상황적 요인에 크게 의존한다(박순진, 2017). 이러한 점에서 과학적이고 실효적인 성범죄자 치료를 위해서는 “판결 전 단계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분류 및 평가기준이 명확한가?, 그 평가에 법조계, 법심리학계 등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졌는가?, 교정시설 내에서 치료가 미흡한 경우, 형기 종료로 사회에 복귀한 경우에 사회 내 사후 치료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사후 치료에 있어서 전문기관 및 인력이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최고 위험군에 해당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우이다. 미국의 비형사적 강제수용제도,

독일의 예방구금 제도는 우리에게도 숙고해야 할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없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정당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며, 사회를 위협한 개인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는 그 위협자의 치료가 능성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고 위험군에 속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와 더불어서 독자적인 시설 내 처우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종래 문제가 되어 왔던 보호감호와는 달리 친사회적 보호수용을 통하여 이들의 처우를 미국의 비행사적 강제수용과 비슷하게 하고, 보다 진화된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윤정숙 외 6명, 2015).

범죄자를 영구 격리할 수 없다면 범죄자가 사회로 되돌아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에 부합하는 형사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박순진, 2019).

3. 연구문제 3

1) 연구대상자의 구속 사유 분석

연구대상자의 구속 사유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V-8>의 공연음란(노출행위)죄로 구속된 사유 중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은 81.3%로 욕구적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37.5%로 무의식적 원인으로 나타났다. 주취상태에서 34.4%, 충동적으로 9.4%로 나타났다.

대부분 연구대상자들은 성적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체적 폭력성은 없으나 시각적 청각적 반응으로 욕구를 충족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구속에 대한 두려움보다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노출행위를 하였고, 주취상태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때로는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욕구를 사회심리학적 정의로는 사람을 움직이는 심리적 동인을 말한다. 또는 그것을 충동이라고도 하고, 욕망이라고도 한다. 인간의 욕구는 유기체이다. 인간 내부에서 어떤 결핍이나 과잉현상이 생길 때에 정상인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욕구는 생리적인 성향을 가질 때 일차적 욕구 또는 생리적인 욕구라고 한다(사회학사전, 2000).

〈표 V -8〉 구속 사유 빈도 분석

변수	빈도	퍼센트	
욕구적	무	6	18.8
	유	26	81.3
	전체	32	100.0
무의식	무	20	62.5
	유	12	37.5
	전체	32	100.0
주취상태	무	21	65.6
	유	11	34.4
	전체	32	100.0
충동적	무	29	90.6
	유	3	9.4
	전체	32	100.0

문화적인 기초를 가질 때 이차적 욕구 혹은 문화적 욕구라고 구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에게 욕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다.

인간은 새롭게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하다.

구속사유가 욕구에 의한 무의식적인 주취상태에서 행한 범행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비교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것을 통하여 일반 범죄자에 비해 성폭력 범죄자의 충동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재범원인 분석에서는 병리적 영향과 욕구조절의 어려움 그리고 충동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성폭력 재발 방지 프로그램 운영이 본 연구대상자의 재발방지에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충동성을 낮출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의 근본 취지는 공연음란죄에 대한 법률적 무관심과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간과를 인식하는 계기 마련에 있다. 범죄행위는 크거나 작은 것에 있지 않고 범죄피해자는 피해자로서 존재함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소홀하게 다뤄 왔던 공연음란죄 범죄 행위자의 근본적 치유방안과 피해자에 대한 치료적 대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폭력 범죄자들 중 공연음란죄 대상으로 하는 재범 방지 프로그램에 있어서 약물 치료의 병행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교정단계에서나 사회내처우 단계에서 실시하는 심성순화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일반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적용하는 심리치료 기법과는 다른 특화된 맞춤형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다른 연구에서 노출관련 범죄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노출추행/추격형, 영상통화/ 사이버노출형, 유인/은닉노출형, 일반노출형, 차량노출형으로 유형이 구분되었다(신관우, 2012). 선행 연구결과를 통해 각 유형별 범죄의 행태를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① 노출추행/추격형은 주로 20대·30대·40대의 가해자가 월·화·수요일의 낮 시간대(09:00~17:59)에 충동조절 또는 호기심으로 10대·20대의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학교와 노상에서 성기를 노출한 후 물리력을 행사하며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지역까지 추격하는 노출 유형이다. ② 영상통화/사이버노출형은 10·20·30대의 가해자가 주로 화요일의 밤시간대(20:00~03:59)에 호기심이나 충동조절 문제로 10대·20대의 피해자에게 첨단 통신 기능을 활용하여 노출하는 유형이다. ③ 유인/은닉노출형은 주로 20대의 가해자가 화·목요일의 낮시간(09:00~17:59)에 충동조절의 문제로 10·20대의 여성 피해자에게 학교·공원·노상주변에서 소리를 내는 수단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시선을 끈 뒤 바지를 내리고 노출을 하거나 자신의 자위행위를 구경하는 대가로 용돈을 요구하는 노출 유형이다. ④ 일반노출형은 주로 30·40대의 가해자가 월·화·수요일의 낮(09:00~17:59)·밤(20:00~03:59)·아침(07:00~08:59)에 정서적 외로움·정신적이거나 충동조절의 문제, 행위자체에 쾌감을 이유로 10·20대 여성 피해자에게 노상·학교 주변·공원 등의 공공연한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바지를 내려 성기 또는 엉덩이를 노출하는 유형이다. ⑤ 차량노출형은 주로 30대 가해자가 화·수요일의 낮시간대(09:00~17:59)에 충동조절의 문제로 10대·20대의 여성 피해자에게 학교주변과 버스 승강장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

보아 피해자가 접근하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유형이다(위희정, 2015).

연구대상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받고 출소 한다면, 미래의 사회는 바람직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재범 방지라는 큰 성과로 이어지는 것일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32명의 공연음란(노출행위)죄 수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출된 공연음란(노출행위)죄 범죄자의 심리특성을 일반화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후속 연구를 통해 더 많은 공연음란(노출행위)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더 세부적인 요인과 성폭력 범죄 발생 빈도와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좀 더 내실 있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보다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와 더불어 공연음란(노출행위) 범죄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심화 연구로 국내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리라 기대한다.

2)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시스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운영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지원 시스템이다(여성가족부, 2020). 응급상담, 심리치료, 사례관리, 부모교육, 사이버 상담, 피해자 응급조치 및 외상치료, 증거채취, 긴급지원체계 운영, 전문가 그룹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Ⅵ. 논의 및 결론

본 연구 중 <연구문제 1>에서는 공연음란 범죄자의 재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 결혼여부, 직업, 학력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유사점을 분류하고 기존 통계 자료와 비교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분석하였다. 약물의 특성은 2019년 신일서적의 대한민국 약전 등을 참고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는 법무부 교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가해자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기본과정 100시간을 이수하기 전과 후의 자기존중감, 강간통념, 분노, 충동성, 아동성추행, 고독감, 성대응 등 7개 항목의 척도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 중 <연구문제 3>에서는 연구대상자의 구속 사유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공연음란죄 범죄행위로 인한 구속 원인 분석과 통계 자료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연구문제 1>에서는 모두 남성이고, 40대가 34.4%, 건설일용직 15.6%, 미혼 65.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해보면 40대 미혼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설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남성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약물복용여부에서는 59.4%가 치료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우울증, 위장 질환이 2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분석결과 <연구문제 2>에서는 강간통념 유의도에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성폭력 심리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이 강간통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노와 충동성척도가 사후검사에서 상승하였고, 성대응에서는 하락하였다.

<연구문제 3>에서의 분석 결과는 공연음란(노출행위)죄로 구속된 사유 중 욕구적 원인이 81.3%로 가장 많았으며, 무의식적 원인 37.5%, 주취상태 34.4%, 충동적 9.4%로 나타났다. 욕구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주취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인 공연음란죄 범죄 행위자는 성폭력범죄 가해자 중에서 소수의 인원이며 형법적인 형량도 낮다. 피해자를 직접 신체적으로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과 가해자들이 교정기관에 장기간 구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낮았던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공연음란죄 피해자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통해서 다수의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충격은 타 범죄 피해자들에 비해 약하지 않지만 신체적 피해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 또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 분석을 통해서 가해대상자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초석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자 구속의 원인에서 욕구 또는 무의식에 의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갖는다면 병리적 치료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법무부 교정기관에서 실시한 성폭력 가해자 심리치료프로그램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난 공연음란죄 범죄행위자의 특징을 찾고, 적절한 치료프로그램 적용여부의 필요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연음란(노출행위)은 DSM-5에 의해 성도착 범주에 속한다. 성도착과 성폭력간의 관계에서 성폭력범죄 재범 예측을 위해서는 성도착 존재 여부가 중요한 예측의 기준이 될 수 있다(Hanson & Bussiere, 1998).

성도착 증상 여부로 판단한 재범 예측력은 일반적인 범죄행위로 예측한 재범률보다 더 뛰어난 예측력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수용하여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다(Hanson & Thornton, 2000). 이는 공연음란 행위 자체만으로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적으로 공연음란의 노출행위는 성도착이다. 유아적인 형태의 성(性)으로 퇴행하고 고착되어 성인기까지 지속된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 성도착 행위는 고착되고 의식화된 하나의 과정이 된다. 공연음란 범죄자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만 성적인 절정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性)적 흥분에 도달할 목적으로 경계하지 않고 있는 낯선 사람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강한 욕구나 상상을 갖거나 또는 실제로 노출하는 행위를 한다. DSM-5에 정신장애로 진단하고 있는 노출증을 정신역동 측면에서는 거세공포를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성기를 보이는 충격 행동을 통해 남성임을 과시하

고 상대방이 놀라거나 두려워하면서 보이는 혐오적인 반응을 통해 거세불안을 극복하려고 하거나 남성이라는 정체체감에 대해 심각한 불안을 회복하기 위해 성기노출을 하는 원인이 고찰되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 치료에서는 인지행동치료(CBT)가 성적 일탈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불쾌한 증상을 유도하는 약물이나 전기 충격, 냄새 등을 활용한 혐오 치료 등으로 행동수정에 초점을 둔 접근이 사용되었다. 그 후 추가적으로 치료적 접근에 있어 성적 일탈 이외에도 대인관계 기술, 인지적, 감정적 요소들이 치료 목표가 되었다. 성범죄자 치료에 있어 인지행동치료의 재발방지 모델(Relapse Prevention Model), 위험성-욕구-반응성 모델(Risk, Needs, Responsibility Model, RNR) 및 좋은 삶 모델(Good Lives Model, GLM) 등과 함께 최근에는 긍정심리학을 통합적으로 접목하여 성범죄자의 재범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해결중심치료는 성폭력 가해자 집단프로그램 진행시에 집단원 스스로 자신이 문제해결방법을 찾아나가는데 있다. 비자발적인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치료에서 해결중심치료는 참여 동기가 낮은 집단에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해결중심치료는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다. 어떤 내담자에게도 일상생활에서 성공했던 경험이 있기에 이러한 경험을 근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잠재능력을 믿는 것이다.

형사사법체계상 노출행위와 관련된 범죄 발생에 대해서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으로, 공공장소에서의 공연성과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하여 성적인 수치심과 성도덕을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와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일부나 치부가 드러나 보이게 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 성립하는 과다노출로서 의율하고 있다(경범죄처벌법 제1조제41호). 또한 정신장애로서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는 치료감호의 대상자(치료감호법 제2조제3호)로 보아 치료 처우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신관우, 2012).

노출증으로 인한 범죄행위는 기동성 확보를 위한 지능적 행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노상이나 공공장소에서 범해지는 노출행위에 대하여 일반 국민

의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민들에 의한 범죄의 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초동조치 및 치안적 측면에서 신고 지역에 대한 사전적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성범죄로서 공연음란 행위의 효과적인 검거와 활동을 위해 수법적 유형과 발생장소 등에 대한 통합적 대응 매뉴얼과 관계기관의 공개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정신장애로서 노출증, 즉 노출장애의 원인이 신체적 노출로 인한 범죄 발생일 경우에는 약물치료를 위한 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은 대부분 자기 자신만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현대사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때로는 그 결과가 충격적인 경우도 있다. 그와 같은 연관선 상에서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의 성기를 공공장소에서 노출시키는 상상이나 행위를 통해서 성적인 만족을 얻기도 한다. 더불어,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 중에는 그로 인해 사회적·직업적 영역에서 심각한 장애나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장애는 형사사법 체계의 형벌로써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문제일 수밖에 없다.

정신적 장애인 노출장애를 겪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고 그들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치료적인 문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이다. 노출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형사적 처벌과 치료적 처우는 반드시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공연음란(노출행위) 범죄 관련된 형사절차상의 문제점들을 다시 고려하고 엄정한 범집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 문헌 검토와 통계자료를 통해 공연음란죄 범행 대상자의 재범을 낮추기 위한 효과성 증대를 위해 자료 분석을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이 재사회화한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 병행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법원 판결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 내 처우가 연계되어 사실상 내적 통제가 어려운 대상자들의 위험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 안전과 이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성도착증인 공연음란 행위의 치료

는 개별화, 과학화, 연속화의 실효성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공연 음란죄 행위자를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 시행과 사회 내 처우와의 연계 그리고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불특정 다수의 암수 피해는 줄어들 것이다.

다음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가 병행된다면 좀 더 명확한 성폭력범죄 관련 행위자의 맞춤형 처우방안이 모색될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과 가해자 개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는 재범방지와 피해자 양산을 미연에 막는 방안의 토대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정희, 김선녀(2014). 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 연구, 35, 71-105.
- 고려진(2010). 성범죄자들에 대한 재범 추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2), 155-170.
- 고려진, 이수정(2009). 성범죄자들의 성 기호 평가에 한 연구. 한국범죄학, 3(2): 3-40.
- 고시면(2018). 불꽃페미액션의 ‘반나 시위’가 공연음란(형법)과 과다노출(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법행정, 59(7), 2-19.
- 권석만(2006). 이상심리학, 학지사.
- 권해수, 이은아(2014). 좋은 삶 모델에 기반한 수감명령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기본심리 욕구, 공감,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27-138.
- 김성규(2008). 성범죄대책에 있어서 재사회화의 위상과 과제. 형사정책, 20(1): 61-82.
- 김용국(2015). 음란물의 개념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용희(2018). 성범죄자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치료프로그램 효과분석. 석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서울.
- 김윤식, 박지선(2011). 공연음란 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심리학회.
- 김정내, 이종연(2017). 성폭력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개입 프로그램의 국내 연구동향, 교정복지연구.
- 김주환(2011). 회복탄력성. 위즈덤 하우스.
- 김지선, 박미숙, 홍영오(2014). 범죄백서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진숙(2014). 성범죄자의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연구, 광운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김태명(2018). 현행 성폭력범죄 대책의 문제점과 보완방향. 서울법학.
- 김혜성(1998). 회복력(resilience) 개념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28(2), 403-413.
- 류여해(2010). 교정시설의 성범죄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47호.
- 민성길 등(2007). 최신정신의학, 일조각.
- 민수홍 등(2017). 범죄학 이론, 나남.
- 박상기, 이건호(1995).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연구-범행유형과 제재수단을 중심으로, 연구 총서, 25.

- 박상열(2009). 성범죄자처우의 새로운 동향과 그 과제. 성균관법학, 21(1): 149-168.
- 박상열.(2010). 성범죄자처우의 새로운 동향과 그 과제 - 의학적 처우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24.
- 박수정(2014). 성폭력수용자의 치료프로그램 참여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평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순진(2017). 범죄에 대한 과장된 인식이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경찰학논총, 제12권 제2호
- 박순진(2019). 성폭력 범죄 관련 형사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14:4, 69-99.
- 박용순, 문순, 임원선, 임중호(2008). 사회문제론, 학지사.
- 박한호(2019).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논의.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8(4): 106-124.
- 배미란(2013). 경범죄 처벌법 상의 과다노출 행위에 관한 검토. 법학논문집, 37, 147-168.
- 서유진(2013). 긍정심리학의 정신건강 요소에 기초한 장애학생 가족의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분석. 특수교육저널, 14(4), 27-56.
- 성태제(2007). (SPSS/AMOS를 이용한) 알기 쉬운 통계 분석: 기술 통계에서 구조방정식 모형까지. 학지사.
- 선중수(201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논총, 23(2): 59-91.
- 송성자, 점문자(2002).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해결중심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48: 302-332.
- 신경림, 공병혜(2001). 현상학적 연구. 현문사.
- 성경숙(2015).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처우에 관한 고찰. 일감법학, 30(0), 109-136.
- 신관우(2012). 노출증과 범죄:노출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
- 신기숙(2016). 교정시설에서의 성범죄자 치료 방향성 정립을 위한 고찰. 교정담론, 10(2), 211-240.
- 신희천(2006). 성도착증과 성정체감 장애. 학지사.
- 양현호(2018). 외국의 사례를 통한 국내 아동 성범죄자 약물치료의 실효적 운영 방향. 한국치안행정논집, 14(4), 213-242.
- 오민자(2008). 교정과 미술치료. 아시아교정포럼.
- 유재두, 송병호(2009). 성범죄자와 일반인의 공간통념 비교 연구. 한국공인행정학회보, 18(3): 134-165.

- 윤가현(1998). 성문화와 심리. 학지사.
- 윤덕경(2012).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윤옥경, 박정선, 최순중, 서은경(2010). 교정통계 연보 정책 활용도 및 효용성 제고를 위한 교정통계 개선방안 연구, 법무부.
- 윤정숙(2019). 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평가연구 : 치료내 변화 (Within-treatment change)를 중심으로. 교정담론, 13(1), 99-126.
- 윤정숙, 박정일, 여운철(2011).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연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4.
- 윤정숙, 이수정, 김일수(2012).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방안(1), 법무부.
- 윤정숙, 박정일, 여운철(2011).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연구, 법무부.
- 윤정숙, 승재현, 최이문(2015). 성범죄 원인 및 발생환경 분석을 통한 성범죄자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법무부.
- 윤정숙, 이수정(2012).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주요원칙과 방향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한국심리학회, 31(3), 847-875.
- 윤해성(2009). 형법 체계상의 공연성. 형사정책연구, 417-444.
- 이경재(2011). 성범죄자신상정보 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원법학, 361-405.
- 이경희(2005).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의 제쟁점. 한국윤리학회, 285-316.
- 이경희, 이소우(2005). resilience(회복력) 개념분석. 대한스트레스학회, 13(1), 9-18.
- 이동귀(2016). 너 이런 심리법칙 알아?, 21세기북스
- 이동명, 박현정(2011). 상습적 성범죄자처우에 대한 고찰: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42: 215-232.
- 이수정(2018). 최신 범죄심리학, 학지사.
- 이수정(2007). 국내 성범죄자 치료처우 방안 모색을 위한 미국의 성폭력 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의 실태조사. 법무부: 성범죄자 치료처우 방안모색을 위한 미국의 성폭력 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의 실태연구, 4-139.
- 이수정, 고려진, 박혜란(2008). 한국 성범죄자위험성 평가 도구 개발 및 타당도 연구. 형사정책연구, 19, 309-345.
- 이수정, 위희정(2015). 성범죄 재범요인으로서의 성도착. 한국경찰연구, 14(4), 403-428.
- 이수정, 장은영, 양재원(2015). 지적장애와 성범죄. 교정담론, 9(1), 125-166.

- 이영하, 정보라(2017).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48, 127-147.
- 이은아(2014). 좋은 삶(Good Lives Model)을 적용한 보호관찰청소년 수강명령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분석.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인정, 최해경(2006).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나남출판사.
- 이재상(2008). 형법각론, 박영사.
- 이종수, 신기숙, 이지원(2018).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지각한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교정담론, 12(3), 179-210.
- 이지숙(2019).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된 생쥐 선조체에서 모노아민의 변화. 신현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해리, 조한익(2005).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개발. 한국청소년연구, 16(2), 161-206.
- 장은영, 이수정(2017). 성범죄자 하위유형 분류 및 차별화된 처우방안 제안. 한국범죄학, 11(1), 79-111.
- 정락길(2016). 수치심과 시선. 인문과학연구, 48, 357-382.
- 정민재(2013). 교정분야에서의 성범죄자 심리치료, 법무부.
- 정신교(2010).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예방적 효과, 법학연구, 39: 269-290.
- 정영은, 채정호(2010). 역경의 극복, 리질리언스(resilience)의 신경생물학. 정신약물학회지, 21, 62-70.
- 정지혜(2018). 성범죄의 엄벌화와 관련한 비교법적 연구. 동북아법연구, 12(1), 367-387.
- 정혜욱(2011). 성범죄에 대한 사회제도적 대응방안. 법학논문집, 35(2): 115-137
- 조운오(2016). 성범죄자의 연령별 특징 및 재범 요인 연구. 사회과학연구, 42(1), 125-146.
- 조운오, 이미정(2009). 성범죄자의 성적 일탈경험과 자기합리화에 관한 연구, 한국 공안행정학회보, 18(1): 331-362.
- 차훈진, 정우일(2014). 노출장애와 범죄에 관한 단상. 한국범죄심리연구.
- 채중후(2012). 전자발찌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가족상담 기법 연구.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중진(2017). Insoo Kim Berg의 해결중심단기치료에 대한 미시분석. 한국가족치료학회, 529-553.
- 최중진(2019). 해결중심상담의 변화기제(change mechanism). 가족과 가족치료, 103-123.
- 한남현(2017). 성폭력 처벌법 적용범위와 통계에 의한 구체적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경찰복지연구, 5(2), 3-20.

- 함혜현(2010). 이상성욕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과 처우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6(2): 263-286.
- 허경미(2008). 아동성범죄자의 재범억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45-77.
- 허경미(2011). 성도착사범 처벌의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42: 333-360.
- 허경미(2013). 미국 전자감시제의 효과성 정책 시사 연구. 교정연구, 59: 35-60.
- 홍성렬(2003). 범죄심리학, 학지사.
- 홍장선(2007). 행정 PR트레이닝, 이안에.
- 황일호(2014).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재범방지 효과성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64(1): 7-32.
- 경찰백서(2018). 2018경찰백서, 경찰청.
- 교정통계연보(2019). 2019교정통계연보,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 국립법무병원(2012). 치료감호소의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에 대한 확장 심리치료프로그램. 법무부.
- 대검찰청(2019). 범죄분석 통계.
- 대한법정신의학회(2019). 법정신의학연구, 법정신의학연구.
- 대한신경의학회(2009). 신경정신의학, 중앙문화사.
- 미국정신의학회, 이근후 역(1997). 정신장애의 진단 통계 편람 (제4), 하나의학사.
- 법무부(2020). 2020성범죄백서.
- 법무연수원(2014). 범죄백서.
- 법무연수원(2017). 범죄백서.
- 법무연수원(2018). 범죄백서.
- 보건복지부 인구보건복지회(2011). 학교 교사를 위한 성교육 매뉴얼.
- 여성가족부(2005).성폭력 가해자 교정 · 치료프로그램 매뉴얼.
- 연합뉴스(2014.11.25). '음란행위' 전 제주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https://www.yna.co.kr>에서 인출.
- 조선일보(2018.10.17.) '여대 알몸남' 경찰, 구속영장 신청...오늘 중 구속 여부 결정
<http://news.chosun.com>에서 인출.
- 통계청(2019). 국가 통계포털.
- Brett Kahr, 이세진역(2003). 노출증, 이제이북스.
- Young, J., Klosco, J., and Weishaar, M, 권석만 외역(2007). 심리도식치료, 학지사.
- Abel, G.G., Rouleau, J. L.(1990), "The nature and extent of sexual assault, in W. L. Marshall, D. R. Laws and H.E. Barbaree (Eds)," Hand Book of Sexual Assault: The issues, Theories, and Treatment of the Offender. New York: Plenum Publishing: 9-12.

- Abel, G. G., & Rouleau, J. L.(1986). Sexual disorders. In G. Winokur & P. Clayton(Eds.) *The medical basis of psychiatry* (pp. 246–267). Philadelphia: W. B. Saunders.
- Anderson, D., & Dodgson, P. G.(2002). Empathy deficits, self-esteem, & cognitive 100 distortions in sexual offenders. In Y. M. Fernandez(Ed.), *In their shoes: Examining the issue of empathy and its place in the treatment of offenders*, 73-90, Oklahoma City, OK: Wood 'N' Barnes Publishing.
- Aos, S., Phipps, P., Brnoski, R., Lieb, R.(2001), *The Comparative Cost and Benefits of Programs to Reduce Crime*. ver. 4. Washington Stat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 Barbaree, H.E., Lanton, C.M., & Peacock, E.J.(2001, October), "Psychopathy, treatment behavior and sexual offender recidivism: an extended follow-up", Paper presented to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the treatment of sexual abusers: San Antonio, Texas.
- Bates, A., & Metchalf, C.(2007). A psychometric comparison of internet and non-internetsex offendersfrom a community treatment sample.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13, 11–20.
- Bates, A., Falshaw, L., Corbett, D., Patel, V., &, Friendship, C.(2004). A follow-up study of sex offenders treated by Thames Vally Sex Offender Groupwork Programme, 1995–1999.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10(1), 29–38.
- Bickley, J., & Beech, A.R.(2002), "An Investigation of the Ward and Hudson Pathway Model of the sexual offense process with child abus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7(4): 371–93.
- Brown, S.(2005), *Treating Sex Offender*, Willan Publishing.
- Cortoni, F. T. & Hanson, P. K.(2005), "A Review of the Recidivism Rates of Adult Female Sexual Offender", *ResearchReport No.R-169*. Ottawa. ON:CorrectionalServiceofCanada.
- Cortoni, F., Heil, P., & Marshall, W. L.(1996). Sex as a coping mechanism and its relationship to loneliness and intimacy deficits in sexual offending. Paper presented at the 15th Annual Research and Treatment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the Treatment of sexual Offenders, chicago, IR.

- Hanson, R. K., & Thornton, D.(2000). “ Improving risk assessments for sex offender: A comparison of three actuarial scales”, *Law and Human behavior*, 24(1), 119-136.
- Ireland, J., Ireland, C., and Birch, P.(2009), *Violent and Sexual Offenders*, Willan Publishing.
- Marshall, W. L.(1971). A combined treatment method for certain sexual deviat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9, 293-294.
- Marshall, W. L.(1993). The role of attachment, intimacy, and loneliness in the etiology and maintenance of sexual offending. *Sexual and Marital Therapy*, 8, 109-121.
- Marshall, W. L.(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viant sexual arousal in nonfamilial child molesters. *Behavior Modification*, 21, 86-96.
- Marshall, W. L., Anderson, D., & Fernandez, Y. M.(1999). *Cognitive behavioural treatment of sexual offenders*. Chichester, England: John Wiley & Sons.
- Smallbone, S., Marshall, W., & Wortley, R.(2008), *Preventing Child Sexual Abuse*. Willan Publishing.
- Ward. T.(2002). “Good lives and the rehabilitation of offenders: Promises and problem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7, 513-528.
- Ward, T., & Beech, A.(2006). An integrated theory of sexual offending.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1, 44-63.

<부록>

교정본부

심 리 검 사

(사 전)

수용번호 _____
성 명 _____
수용기관 _____
검 사 일 _____

이 검사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태도, 그리고 느낌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주세요.

다음 문장을 읽고 당신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적어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2	나는 내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3	대체로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5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7	대체적으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8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9	나는 때때로 내가 정말 쓸모없다고 느낀다.				
10	나는 때때로 내가 전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음 문항을 차례로 읽으면서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 또는 느낌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매우 부정	보통	매우 긍정
1	강간을 당하는 여성은 이전에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성폭이 광성한 여자들이 대개 강간을 당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강간을 보고하는 대부분의 여자는 그 사건 이전에 많은 성관계를 가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대부분의 강간 피해자는 평소 성관계가 난잡하거나 평판도 좋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여자가 친근감있게 남자를 대하는 것은 성적 접촉을 허용한다는 의사표시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남자가 식사 등으로 여자를 대접하면 여자는 대개 섹스를 허락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7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그와의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9	여자보다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소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0	여자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타려다 강간을 당했다면, 그녀는 당할만 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1	만일 여자가 목을 껴안고 애무하다 사태가 견딜 수 없게 되어 남자가 성폭행을 했다면, 잘못은 여자에게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2	여자가 모임에서 술에 취해 처음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녀는 성관계를 갖자고 하는 다른 남자들에게 '봉' 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3	남자가 성관계를 요구할 때 여자가 '안 돼' 라고 응답하는 것은 허락한다는 의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4	여자가 노브라, 짧은 스커트, 꼭 끼는 상의를 입은 것은 성 피해를 자초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5	끼 있는 여자는 늦은 밤에 혼자 길을 걷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6	보고된 대부분의 강간 사례는 임신된 사실을 알았거나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여성이 남조한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7	강간을 보고하는 많은 여성은 상대에 대한 분노와 보복하려는 심리로 거짓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8	많은 여자는 강간을 당하고 싶은 무의식이 있고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조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9	대개 강간을 당하는 여자는 저소득 가정의 출신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0	어떤 여자들은 성폭행 당하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람들은 누구나 때로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낍니다만, 화가 났을 때 반응하는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아래에는 사람들이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는 문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신 후, 당신이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꼈을 때 일상적으로 얼마나 자주 아래에 적힌 비와 같이 반응하거나 행동하는가를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습니다. 어느 한 문항에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낄 때...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언제나 그렇다
1	나는 화를 참는다.				
2	나는 화난 감정을 표현한다.				
3	나는 말을 하지 않는다.				
4	나는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대한다.				
5	나는 동해지거나 토라진다.				
6	나는 사람들을 피한다.				
7	나는 소리를 지른다.				
8	나는 냉정을 유지한다.				
9	나는 문을 광 단어버리는 식의 행동을 한다.				
10	나는 상대의 시선을 피한다.				
11	나는 나의 행동을 자제한다.				
12	나는 사람들과 맞다툼한다.				
13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는 않으나, 안으로 앙심을 품는 경향이 있다.				
14	나는 목소리를 높인다.				
15	나는 화가 나더라도 침착하게 자제할 수 있다.				
16	나는 속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				
17	나는 나 자신이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화가 더 나 있다.				
18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빨리 진정된다.				
19	나는 욱을 한다.				
20	나는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21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분통이 더 나 있다.				
22	나는 자제심을 잃고 화를 낸다.				
23	나는 화난 표정을 짓는다.				
24	나는 화난 감정을 자제한다.				

다음 질문지의 문항을 잘 읽어보고,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sqrt{\quad}$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세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2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일을 시작한다.					
3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장시간을 두고 세밀한 계획을 세운다.					
4	나 자신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다.					
5	어떤 일이든지 쉽게 몰두할 수 있다.					
6	정기적으로 저축을 한다.					
7	한군데에 오랫동안 앉아 있기가 힘들다.					
8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생각 한 후 행동한다.					
9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안정성을 깊이 고려한다.					
10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한다.					
11	복잡한 문제를 놓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12	한 가지 일을 채 끝내기도 전에 또 다른 일을 시작한다.					
13	충분한 사전 계획 없이 행동한다.					
14	복잡한 일을 하려고 하면 곧 싫증이 난다.					
15	말 뒤 생각 없이 행동한다.					
16	한 가지 문제를 붙잡으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한결 같이 계속 붙들고 늘어진다.					
17	이리 저리 자주 옮겨 다니며 사는 것이 좋다.					
18	특별한 계획 없이 기분 나는 대로 물건을 산다.					
19	일단 시작한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맺으려고 한다.					
20	수입액보다는 지출액이 많다.					
21	깊이 생각하던 일도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					
22	강의를 듣거나 대화를 할 때 안절부절 못한다.					
23	장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					

다음의 내용을 읽고, 당신의 생각 또는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와 성관계를 하면 그 아이는 어른을 더 친밀하게 느낄 것이다.				
2	아이를 만질 때 그 아이가 기분이 좋다고 말한다면 그러한 행동을 좋아하는 것이고, 아이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3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은 그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경험하지 않는다.				
4	때로 아이들을 성적으로 만지는 것은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다.				
5	어떤 아이들이 성행위에 대해 '싫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아이들이 성에 대해 궁금해 하거나 즐기기 때문이다.				
6	아이가 어른과의 성행위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아이가 좋아했거나 혹은 그 일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7	아이와 성행위를 하는 생각이나 아이에 대한 성적 환상은 실제로는 아이를 해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8	아이와 성행위를 할 때 폭력을 쓰지만 않는다면, 아이에게 그다지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9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실수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자라고 말할 수 없다.				
10	아이를 매무하는 것은 아이를 강간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으며 아이에게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1	아이와 성관계 하는 것은 성인과의 성관계와 상당히 비슷하다.				
12	아이와 성행위 하는 것은 아이가 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13	내가 생각하기에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가끔 그들이 실제로 한 일에 비해 더 긴 형을 선고 받는다고 생각한다.				
14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아이는 아마도 어른들을 유혹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했을 것이다.				
15	사회는 아이들과의 성행위를 실제보다 더 지나치게 크게 다룬다.				
16	때로는 피해 아동들보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이 아이와 성관계 했다는 이유로 훨씬 더 많은 고통과 상실, 상처를 경험한다.				
17	누군가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는 것보다 누군가의 아이와 성관계를 하는 편이 낫다.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	대부분 아동 성폭력은 실제로 아이를 조종하거나 위협하지 않는다.				
19	어떤 아이들은 어른과 성관계를 통해 사랑받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성관계를 좋아한다.				
20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정말 그 성관계를 즐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를 성폭행 한 것이다.				
21	어떤 아이들은 어른과 성관계를 기꺼이 원하고 바란다.				
22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만족시켜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싶어서 아이를 성폭행 하는 동안 기분이 좋은지를 아이에게 물어본다.				
23	어른과 성관계를 한 아이들은 결국 그 일을 극복하고 그들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24	어떤 아이들은 매우 유혹적으로 행동한다.				
25	아이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아동 대상 성범죄자가 다시 아이를 성추행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26	아이를 상대로 한 성폭력은 많은 경우 계획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27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들을 성폭행하며, 성폭행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				
28	많은 경우, 아이들은 관심 받기 위해서 성폭행 당했다는 이야기를 지어낸다.				
29	어떤 사람이 스스로 다시는 아이를 성폭행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그는 다시 하지 않을 것이다.				
30	만약 아이가 어른의 성기를 바라본다면, 그 아이는 성관계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31	때때로 피해자가 먼저 성행위를 시작하기도 한다.				
32	어떤 사람들은 성인 여성과 성관계를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이에게 성적 관심을 돌린다.				
33	어떤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어른스럽다.				
34	어른이 옷을 벗거나 혹은 욕실로 갈 때 아이가 따라 들어오는 것은 어른의 성기를 보고 싶어서 일 것이다.				
35	아이들은 다른 어른 보다 더 많은 수용과 사랑을 줄 수 있다.				
36	아이를 성폭행한 사람들 중에 사실은 아이를 성폭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37	아이와 성행위를 하는 것이 가장 잘못된 점은 이런 행동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38	만약 대부분의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이 어렸을 때 성폭력을 당하지 않았다면, 결코 아이를 성폭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 내용은 때때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각 내용을 잘 읽어보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주위 사람들과 사이가 좋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친구들과 교제가 부족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3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가 혼자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친구들의 일원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내 주위 사람들과 공통점이 많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어떤 사람과도 가까이 지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없는 흥미나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사교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나와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①	②	③	④
13	진실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 괴롭혀져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친구를 사귀기 원할 때 진실하게 사귀 수 있다.	①	②	③	④
16	나를 진실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부끄러움이 많다.	①	②	③	④
18	내 주위에 나와 함께 있어 줄 사람이 없다.	①	②	③	④
19	내 불평을 들어 줄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스트레스나 갈등 상황 및 정서적으로 힘들었을 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하는지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하지 않는다	조금 한다	많이 한다	약간 많이 한다	매우 많이 한다
1	성관계를 동의한 성인과 섹스하는 상상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와 섹스하는 상상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성인과 강제로 섹스하는 상상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고정적인 상대와 섹스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와 섹스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낯선 사람을 유혹해서 섹스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성관계를 동의한 사람과 섹스하는 상상을 하며 자위행위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성인을 강간하는 상상을 하며 자위행위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아이에 대한 상상을 하며 자위행위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상상을 하며 자위행위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성관계를 동의한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본다.	①	②	③	④	⑤
12	폭력적인 음란물을 본다.	①	②	③	④	⑤
13	아이들이 나오는 음란물을 본다.	①	②	③	④	⑤
14	음란물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를 강간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고정적인 상대와 강제로 섹스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Abstract

Analysis of the causes and pathological effects of recidivism on Obscene performance (Exposure behavior) crimes during sexual violence crimes

by

CHOI YONG JUN

*Major in Counseling &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a large number of victims overlooked in society and to realize a joint society for the realization of a restorative Justice by analyzing the causes of recidivism and pathological effects of inmates who commit sexual assault crimes among violent crimes.

This study analyzed the results of the psychological treatment program for sexual violence offenders operated by a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the results of the operation of the psychological treatment program for sexual violence by the Ministry of Justice.

It also analyzed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analysis of 32 inmates accessible through the execution of the completion order and the study of psychological treatment data, the use of medications, and the effectiveness of psychological treatment programs for sexual offenders and the reasons for their arrest.

According to statistical data analysis, 37.7 percent of those who were released from prison for sexual violence over the past five years have been re-enlisted, which is 12.3 percent higher than the average release from prison rate of violent criminals. It shows that sexual violence crimes are expanding and repeating.

The study found that 32 offenders of crime of obscene performance are day laborers who take medication for depression and tend to act unconsciously and have difficulty controlling their sexual desires. cause of recidivism may have implications for psychiatric and psychological things. This means that criminal punishment alone has a low effect on preventing recidivism and that the continued combination of psychological and medical treatment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recidivism.

Through this study, it can be meaningful that the perception that due to low criminal penalties, there is a need for research on a small number of crime groups that do not surface is important for the realization of a common society.